

크리스찬아카데미
2018 제주목회아카데미

“변화하는 세계, 교회의 본질적 응답”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 26일(금)

*장 소: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 제주시 중앙로 470)

<주 최>

성안교회, 성안교회 제주복음화연구원, 제주사랑선교회,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교회활력화네트워크

<주 관>

 크리스찬아카데미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702호

T.02-747-6179,80 F.02-747-6181

제주목회아카데미

(2018. 10. 25-26)

- 강연1, “촛불이후의 한국사회와 기독교” P.1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 강연2.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교회의 선교” P.23
*한국일 교수(장신대)
- 강연3, “선교적 교회와 목회철학 : 전통적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기” P.32
*오창우 목사(한남제일교회)
- 강연4, “다르게 보는 힘” P.45
*이종인 대표(보롬왓)
- 사례와 적용, “선교적 교회 사례와 적용” P.52
*홍동완 목사(도심리교회)
*안준호 목사(참포도나무교회)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 아침성서연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P.121
*한국일 교수(장신대)
- 강연5/워크샵,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P.126
*양혁승 교수(연세대)
*배종석 교수(고려대)
- 강연6, “말씀, 삶, 공동체” P.146
*지형은 목사(성락교회)

<일 정>

요일	시간	형식	내용	강사/진행
첫째날 25일 (목)	09:30	등록	참가자 등록	
	09:40	개회예배	예배와 인사	*설교/ 신관식 목사 (제주교회연합회 회장)
	10:00	강연1	촛불이후의 한국사회와 기독교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12:00	점심식사		
	13:00	강연2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한국일 교수(장신대)
	14:30	강연3	선교적 교회와 목회철학	오창우 목사 (한남제일교회)
	15:40	휴식		
	16:00	강연4	다르게 보는 힘	이종인 대표 (보롬왓)
	17:00		선교적 교회 사례와 적용 *홍동완목사(도심리교회) *안준호목사(참포도나무교회) *조주희목사(성암교회)	홍동완 목사 안준호 목사 조주희 목사
	18:20	저녁식사		
19:30	멘토링	선교적 마을교회 멘토링 (유형별 소그룹)	홍동완 목사 안준호 목사 조주희 목사	
둘째날 26일 (금)	07:00	경건회	아침 성서연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한국일 교수 (장신대)
	08:00	아침식사		
	09:00	강연5 워크샵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양혁승 교수(연세대) 배종석 교수(고려대)
	11:30		전체적인 정리	이근복 원장(크리스찬아카데미)
	12:00	점심식사		
	13:00	강연6	말씀, 삶, 공동체	지형은 목사(성락교회)
	14:30	폐회	폐회기도회	

<개회예배>(2018. 10. 25. 09:40)

*인도/ 구판수 목사(약근교회, 제사선 총무)

- 묵상기도 / 다같이
- 찬 송 / 67장(1,4절),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4.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 기 도 / 김인주 목사(봉성교회, 제주NCC총무)
- 오늘의 말씀 / 벰후 1:5-7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 말씀선포 / “더 귀히 쓰임받기” 신관식 목사(법환교회, 제주교회연합회 회장)
- 찬 송 / 445장(1,3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자”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 축 도 / 류정길 목사 (성안교회)

- 인사 / 류정길 목사(성안교회 담임)
이근복 목사(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 나눔

1. 제주목회아카데미를 위해 수고해주신 성안교회와 성안교회 제주복음화연구원,
제주사랑선교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 참석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재정지원과 장소, 식사를 제공한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에 감사드립니다.
4.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폐회기도회>(2018. 10. 26. 14:30)

*인도/ 이근복 목사(크리스찬아카데미)

- 찬 송 / 208장(1,3,5절), “내 주의 나라와”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 오늘의 말씀 / 마태9:36-38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폐회기도 / 인도자

촛불이후의 한국사회와 기독교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1.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

-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공감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비판과 분노였고, 그 분노의 근원은 국민주권 박탈이었다.

- 약 24주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매주 무엇이 핵심 이슈였는지 담론분석을 해보았다. 24주를 관통한 핵심단어는 딱 두 개. '분노'와 '탄핵'이었다. 촛불은 대한민국을 역사의 퇴행에서 구해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 학습의 장이기도 했다. 촛불의 힘으로 구시대의 적폐를 조금이나마 빨리 끝내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세 개의 민주주의가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고 공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 (장덕진)

-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재벌기업과 박근혜 정부의 유착은 촛불의 배경이 된 것으로서 모두가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결손',¹⁾ 즉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주어진 자신의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법에 맞게 공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대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서 2016-2017 시위는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 집약되어 있듯이 국가를 국가답게, 주권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하라는 요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촛불의 민심이란 양극화 해소와 공정성의 회복(연합뉴스, 2017.10.25.). "변화의 속도는 더딜지라도 적폐청산 과정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가는 것이 정도(正道)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지켜보자'고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요구사항을 말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연합뉴스, 임혁백)

- 국민 주권 박탈에 대한 분노가 참가자들의 주요 동력이었기 때문에,²⁾ 2016-2017 촛불시위는 87년 민주화로 개정된 민주 헌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바탕에 깔려있었지만, 그

1) 에이프릴 카터, 조효제 역, [직접행동 -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2007, 493

2) 헌법을 자신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박상훈 인터뷰)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을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점도 있었고 국민이 직접 새롭게 헌법을 써야한다는 요구도 깔려있었다.³⁾ 대체로 촛불집회는 거리에서의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부를 만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보면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물가 상승 억제가 각각 1위와 3위에 위치해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사회 복지 역시 6위여서 빈부차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다. 이어 언론 자유 보장과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해 경제 문제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가 중요한 주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병기, 동향과 전망, 2017 가을.겨울, 통권 101호).

- 2016-2017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 9년 동안 부활된 권위주의 통치, 공안기관을 활용한 통치 방식에 크게 위축되었던 한국인들이 정치적 능동성을 되찾았다는 점이었다. 위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역량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으며, 정치적 불신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는 커졌다. 이것은 시민 직접정치로서 촛불의 힘을 인정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 촛불 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⁴⁾

1) 촛불의 시대정신

- 촛불 시위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한두 번의 정권교체, 헌정체제나 권력구조, 국민대표체제(내각제,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여러 정부 개혁조치(국정원, 검찰 등 공안사정기구) 등의 개혁으로 완수할 수 없고, 토대인 한국 자본주의 질서의 경로변경, 남북관계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 그리고 노동-복지-교육 개혁 등을 요청하는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 촛불시위 이후의 한국은 새로운 정치 사회적 주체의 등장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음. 현재의 집권당인 매우 취약한 정당적 기반과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음.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정당정치가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

-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지난 30년의 민주화, 50년의 개발독재와 성장주의 패러다임, 70년 동안의 반공반북, 친미 패러다임의 청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 식

3) 마지막으로 국민이 나서 촛불이라는 비상적 헌법회복 수단을 썼다.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다. 세계의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한다. 지금도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이석연)

4) 아래의 글은 김동춘, “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정치의 새 국면”,([황해문화], 2017 봄)을 주로 정리한 것a.

민지 근대화, 수동적 방어적 근대화의 한 세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근대, 혹은 새로운 탈근대의 문명을 개척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

-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2008년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후퇴 국면, 지구적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극우세력의 등장,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위기 국면과 맞물려 있음. 사회주의 붕괴이후 지구적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 30년을 지탱해온 신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자 유럽에서는 테러와 인종차별주의에 기초한 극우세력이 등장했고, 남미, 아시아에서는 개발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더 심각한 내적인 모순을 낳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새 정치적 대표체제의 요구는 비등하나 20세기에 만들어진 정치체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

-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 박근혜 게이트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들이 편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의 내용이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은 최고위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명을 받아 공무원들과 기업간부들이 범법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게이트의 모든 진상이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매우 중요하고 법원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 국정농단의 수면아래에는 바로 세습자본주의가 있다. 특권경제, 세습자본주의를 바로 잡아 노력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청년, 영세자영업자, 하층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세습자본주의의 핵심에는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노력없이 획득된 자산의 부당한 세습이 있다. 상위 10%가 부의 66%를 독점하고 있고, 그 부가 정당한 투자에 의한 이윤이나 임금소득이 아닌 지대추구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고, 그것이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내지 않고 세습되는 나라에서 희망이 있을 수 없다.

- 촛불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학습의 경험을 가졌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책 현안에서 유보집단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들의 요구는 더 구체적이 되었고, 정책에 대한 판별 능력도 높아졌다. 국민의 인구학적 비중의 변화도 의미심장하다. 민주화 이후의 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청년세대는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데 20-30, 그 중에서도 상층 10%를 제외한 하위 90%의 청년은 이 시대 가장 고통을 받는 집단이다. 이들이 시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조직화외 경험이 없고, 대변할 정치집단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질서에 길들여져 있고 매우 개인화되어 있다. 이들은 세습 자본주의,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지난 번 비트코인 사태는 바로 사회적 출구없는 이들의 '투기적 행동'이 드러난 것이었다. 가족상속, 가족투자가 가장 보편화된 한국에서 그 나머의 사회보장 정책도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출구가 없다.⁵⁾

5) 실업문제와 청년층 빈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안착시키는

2) 제기된 구조적 개혁의 과제들

- 지난 4년 동안 그들은 이러한 게이트가 발생하는 동안 관료집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나 적어도 매우 복종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료들 중 일부만이라도 제 목소리를 냈더라도 4대강 사업, 44조원의 국고가 강바닥에 버려지는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와 검찰 관료들 중 몇 사람만 더 목소리를 냈더라도, 2012년 대선의 댓글 공작 수사가 그렇게 중도에 그치고 채동욱과 윤석열이 그렇게 어이없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든 박근혜 정부에서든 새누리당 의원들 중 10명이라도 양심의 목소리를 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개발독재형 ‘규제포획’의 결과였다. 이것은 정권의 실패 이전에 정부의 실패였다. 이 실패를 교정해서 정부를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의 요구다.

- 박근혜 게이트를 가져온 실질적인 주역은 검찰과 언론이었다. 검찰이 2012년 대선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그리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사전에 교정될 수 있었을 것이고, 언론 특히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이번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움직이는 상황의 극복이야말로 개혁의 첫째 과제가 될 것이고, 언론이 정치권력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면 민주주의는 질식될 것이기 때문에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권력, 특히 재벌과 정치권력의 뒷거래, 관료들의 사익 추구 행동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행위자들을 재벌의 갑질에 여과없이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재벌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요구한 내용은 권력 승계(삼성), 면세사업 진출(롯데), 노조의 집단행동 통제(현대) 등 모두가 정치권력의 재벌 편향적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모두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부당한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즉 재벌들의 의사결정이 총수 일인에게 독점되어 있으며, 이사회

문제가 지금 정책결정자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청년층의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금처럼 고령자 중심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이어간다면 한국 역시 EU 사례처럼 청년 세대 전체의 빈곤화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일보, 2018.2.18.)

6) 박동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프레시안, 2014.1.6.

가 유명무실하고, 노조의 감시가능이 전무한 현실이 재벌과 박근혜 정권의 뒷거래를 가능케 한 조건이다. 따라서 재벌의 세습을 막고, 특혜를 제한하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이 박근혜 게이트의 적폐 청산과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의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개혁과제다.

- 한편 문체부, 복지부 등은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문화산업을 위축시키고 삼성의 합병을 지원하는 행동을 했다. 물론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직업 공무원들이 그들의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 적극적으로 순응했고 불법을 방관했거나 그에 동조했다.

- 박근혜-최순실의 권력농단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도 무자격 외부인사가 국가권력의 행사, 국가예산의 입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선거로 집약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는 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기존 헌법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 발안제, 국민투표에 의한 상시 헌법 개정 가능성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한편 촛불시위에서 수백만이 집결해도 결국 입법권은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다수 시민의 요구를 당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세월호 참사와 규제포획

김종인은 “한국의 건설 주택정책을 언제 정부가 결정했나, 건설업자들이 정했지”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역대 한국의 건설 정책은 건설쪽의 건설쪽에 의한 건설쪽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광고의 반이 아파트 분양 광고로 채워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로비에 의해 건설예산을 책정하고, 검찰이 이들의 로비로 움직인다면 사실상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재벌이 사실상 좌지우지정하고, 국가안보 정책은 국정원이 움직이고, 교육정책은 학원 사교육 기관이 좌지우지하고, 의료정책은 대형병원이 움직이고, 원전 정책은 원전파피아가 좌우한다면 사실상 이익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여 자신의 뜻에 맞게 법과 행정을 움직인다는 말이다.

(이태호, “한국의 촛불시민혁명과 참여민주주의”)

촛불혁명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주권자의 권리 회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이후 건설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또 실재로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발붙일 수 없고 주권자 위에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로 개혁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

7) 박태건, 참여정부, 건설쪽의 덫체 걸리다. 뷰스, 2009.14

고, 국가운영과 생활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한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주권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셋째, 정치-경제-관료-언론의 특권유착구조를 혁파하고, 적폐세력들을 엄단하며 주권자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각종 국가기구들을 보다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물 샬 틈 없는 감시견제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보다 개선된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권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며, 모두를 위한 복지, 평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권자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해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을 새로운 헌정질서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3.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왜 좌초되었나?

뉴질랜드의 노동당 정부, 영국의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모두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정당이 되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 외국에서 노동당, 민주당 등이 집권을 해도 정책의 의제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보수당 등 보수적인 정당이 쥐고 있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의제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전망과 대안을 이들 진보적인 정당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⁸⁾ 결국 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자유화, 금융자본의 지구적 지배라는 조건 때문에 각국의 개혁정부가 들어서도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초, 시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급박한 요구 앞에서 경제, 노동정책에서 신자유주의 기초를 받아들였다.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교육개혁 주요 의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정권에서도 교육정책의 뼈대 역할을 했다.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 열린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실시됐다. 대학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했다. 오늘 한국 교육은 모두 5.31 교육개혁안의 그늘 아래 있다.

- 노무현 정부역시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고, 즉 자유주의 복지의 시고와 정책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 영역에서도 일자리의 질보다는 일자리 자체를 늘이는데 치중하

8) Arun Gupta, "Why right-wing ideas drive the national agenda even when Democrats control the White house?" How the Democrats became the Party of Neoliberalism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stand for anything and the Republicans are the party of ideologies.

거나, 교육에서도 공공성을 강조했으나 내용적으로는 5.31 이후의 기초, 즉 자율과 경쟁력과 변별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복지를 가능하면 축소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 복지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는다.

“20년간 각종 공공기관장을 해봤다. 어떤 기관장이 가장 유능한 기관장인 줄 아는가? 자리없애거나 임금을 많이 깎는 사람이다. 그러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다. 이게 진보정권이라는 김대중(DJ) 정부부터 시작됐다. 그 개념이 지금까지 지배한다”⁹⁾

- 참여정부의 ‘비전 2030’(2006)은 우리사회의 장기 개혁 과제(인구감소, 노동력 축소, 성장 동력 축소)를 매우 적절하게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는가? 정권의 교체 외에 관료집단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

- 두 민주정부는 왜 이런 한계를 가졌던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본격화된 한국 신자유주의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엘리트에 주도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인 경제 투명성 확보, 반부패, 재벌개혁의 변죽을 울렸으나, 곧바로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오히려 이 위기는 국내 경제엘리트들의 매개 하에 외국자본이 한국의 금융과 기업을 거저 집어먹는 기회가 되었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여전히 공정경쟁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독점의 영역과 과도하게 생존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완전히 이중화되었다. 정작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는 독점이 지배하고, 오히려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영역은 과도한 경쟁과 시장주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¹⁰⁾ 즉 탈규제는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특권영역과 경쟁영역은 이원화되었다.

- 1948년,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이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보루의 구축을 위한 기획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일제 말 전시체제 하의 병영국가 요소가 해체되지 않은 채, 이후 개발독재에 동원되었으며, 이러한 국가기구와 지배질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해체되기는커녕 기업의 논리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부나 사회영역까지 지배하는 ‘기업사회’로 변했다. 즉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원산지인 미국의 것과 다르며, 개발독재형 자본 편향의 양상이나 사적 이익의 국가기구 사유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회주의 붕괴 이후 동구권이나 남미 등 주변부 국가의 신자유주의와 유사하다. 관료조직과 법원이 재벌기업에 ‘포획’되어 이들의 범법에 대해서는 거의 법의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한편 국가가 기업이 고용한 용역 폭력을 방관 혹은 묵인하고, 기업 측의 노조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¹¹⁾

9) ‘저출산 극복, 6시 퇴근부터 시켜줘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경향비즈, 2017.4.2.

10) 관료집단, 재벌, 공기업, 제1 야당, SKY 대학은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채 독점 지위를 향유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제 사회 영역은 전쟁과 같은 약육강식 논리가 적용된다.

11) “The Mafioso State: State-Led Market Bypassing in South Korea and Turkey”, Ingyu Oh and Recep VarcinSource: Third World Quarterly, Vol. 23, No. 4 (Aug., 2002), pp. 711-723Published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대에 걸맞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김상조)

- 이러한 이념과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혁적인 자유주의 혹은 진보정당들은 풀뿌리 대중들, 특히 노동세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 즉 미국 영국 등 앵글로 색슨 형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보수정당들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가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었으나, 개혁자유주의 진보정당은 중산층, 노동세력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어려웠다. 즉 담론은 개혁적이었으나 조세, 재분배 정책, 복지정책, 노동친화 정책 등을 통해 잠재적 지지들에게 손에 잡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없었다. 결과 이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¹²⁾

- 사회적 힘의 관계에서 기득권 세력의 힘이 너무나 강고하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정치권력을 장악해도 경제관료 집단, 경제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은 여전히 보수세력에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교체된 개혁자유주의 세력도 보수의 담론을 차용한다. 한국의 경우 게다가 지역사회는 70년 축적된 토호세력이 풀뿌리를 장악하고 있다.

* "한국 기득권의 힘은 진보 개혁 진영의 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강하다". 우리나라의 기득권, 소위 보수는 언론, 법조,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다. 대형 교회가 움직이면 몇 만 명 모으는 것 순식간이다. (유인태 인터뷰, 프레시안)

- '약한 국가', '저신뢰 사회'의 제약이다. 미국, 영국 등 불평등 수준이 높고, 신자유주의 기조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GDP 대비 국가의 재정규모가 적거나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국가는 사회적 지출의 여력이 약하고, 또 시장주의의 기조 때문에 사회지출의 확대도 큰 제약을 받는다. 한국역시 기본적으로 후발국가의 특징과 더불어 이들 앵글로 색슨형의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약한 국가, '저신뢰사회'을 갖고 있다.

* '약한 국가', '저 신뢰 사회'를 넘어서려면(김동춘, 다산포럼, 2016. 9.19)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 규모를 보면 정부 예산이 400조를 넘었고 복지비도 130조를 넘었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 예산 중 복지비 지출액수는 물론 GDP중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GDP 중 복지비 지출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

12) "Republicans stand for something and mobilize their base. Obama has done little for working Americans after healthcare reform. They go hat in hand to corporations and promise more tax breaks and corporate welfare in return. Democrats can never be as committed to the free market ideologies as Republicans. Democrats need to satisfy some needs of their social base while republicans can move the goalposts further right and wait for the Democrats to play catch up"

복지 국가에 속한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봐도 스웨덴이나 독일은 1만 불을 넘었을 때 복지비 지출은 20%를 넘어섰으나 3만 불에 육박한 한국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재정과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포함)도 OECD 평균에 10% 정도나 뒤떨어져 있고, 여전히 OECD 최하위 군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저 복지’도 큰 문제이지만, ‘저 재정’ 즉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이 재산, 소비,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부자나라이기는 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부자이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너무 적어서 재분배 정책,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가 민간 경제활동에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는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규모로 보면 실제 한국은 ‘약한 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개발독재 시절인 6,70년대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았다. 87년 민주화, 두 민주정부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 탈규제, 민영화론이 득세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증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논리가 세를 얻어서 급기야 종부세도 폐지되고 법인세도 줄어들었다. 국가의 공간은 비었으나 부자들은 웃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기 300조원 정도였던 국가부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 내년도 국가채무는 680조가 될 것이라 한다. 4대강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공사의 부채 8조 중 2조 4천억을 정부 재정에서 메울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 더 답답한 심정이다.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국가의 재정규모를 획기적으로 늘여도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크게 늘어날 연금, 복지,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 뻔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재정규모를 뒷걸음치게 만들고 그나마 국가 부채만 잔뜩 늘었으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보다 더 분통터지는 일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 세대 이상 지속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짐을 남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가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저성장 고령화 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한국으로서는 재정 규모 자체, 그리고 그 중 복지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통합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했다. 조세 부담률 즉 재정규모를 늘려면 국가 신뢰의 확보, 즉 조세 징수의 공정성과 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의 민주성과 공공성이 보장될 때만 국민들을 납세 의사를 가질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재정규모가 적고, 복지 지출이 미미한 미국, 멕시코, 그리스 등은 하나같이 정치 불신이 높고,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매우 취약한 나라들이다. 물론 성장이 지속되어야 세금도 걷힐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극도로 불평등해진 나라의 국민들이 소득세를 더 낼 여력이 있을까? 그리고 한국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들, 썩어가는 4대강, 연일 터지는 국방비리, 그리고 한진해운 경우처럼 경영 실패로 인한 기업부채를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한 일, 정권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을 접하는 국민들이 자연 세금을 내려할까?

‘저 신뢰’, 관료 부패야 말로 국가의 공간을 비게 만들어 국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의 적’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는 과연 어떠했나? 재정 확대의 비전이 없었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무너졌나? 정권이 교체되면 달라질까?

●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 저출산 정책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약 150조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을 투자했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는가? 이 문제는 정권의 문제 즉 정부의 이념적 성향,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정부실패, 즉 한국 관료집단의 실패라 볼 수 있다.

“한국은 가족계획이 너무 성공하다보니 방향전환이 늦었다. 한국이 인구대체율(현 상태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한 것은 1983년이다. 10년이 지난 1993년 인구정책 30년사 발간 때도 600페이지 전부를 출산율 떨어뜨리는 것을 자랑으로 채웠다. 어디에도 출산율이 떨어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없다. 1995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UN세계인구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갔다 온 자문단이 ‘우리 출산율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가족계획 중단해야할 것 같다’고 제안하더라. 당시 내가 복지부 장관이었는데, 6개월간 인구심의회를 거친 뒤 가족계획사업을 중단시켰다. 지금 생각해 보면 1983년에 바로 저출산 대책을 세웠어도 늦었다”¹³⁾

저출산은 80년대 말에 예고되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는가? 2000-년 이후에도 각종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은 어느정도 규명되었다(고용불안, 주거불안, 여성의 교육과 권리의식 향상, 공공 육아 취약) 그런데 왜 원인에 대한 처방의 방식으로 접근되지 않고 출산장려라는 미봉적 사후적 방식의 처방이 반복되었나?

- 대학 문제

대학 진학 인구의 축소역시 90년대 초에 예고되었다. 그런데 왜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 설립준칙주의에 의해 대학의 인허가가 폭발했나? 이것이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었나? 이렇게 대학 설립을 무차별적으로 허가해준 교육부가 왜 지난 10년 동안은 대학의 필연적인 축소를 명분으로 하여 대학 평가 대학 길들이기 정책을 지속하고 있나? 이 이율배반은 어디서 온 것인가?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어느정도 지연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나? 그렇게 교정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모든 과정(설립인가,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한 예산 배분)에서 대학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오직 교육부 관료의 권한만 확대된 것은 아닌가? 이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왜 수정되지 않고 있나?

- 자살 예방

13) ‘저출산 극복, 6시 퇴근부터 시켜줘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경향비즈, 2017.4.2.

4. 사회혁신과 정부개혁

1) 사회혁신

개인의 행복, 역량,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혁신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북유럽이나 스위스 등의 국가들에서 행복지표, 혁신지표, 역량지표, 복지/안정/평등 지표 등 각 지표가 유사한 수준(상위랭크)으로 나타난다. 구교준, 최영준, 박일주(2017)의 연구에서는 역량의 핵심을 복지로 보고 복지, 보건, 교육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만명당 특허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복지지출의 효과가 R&D지출과 함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최영준)

2) 장벽들

국민대통합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경쟁사회라 본다. 그 다음이 양극화 사회다. 즉 한국은 극도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일상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극단주의적인 시장사회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생각이다. 사회경제 지표를 보면 왜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나

(단위=%)



*계층별 105명 심층인터뷰

“국민대통합위 보고서”, 매경, 2016.2.25

한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1년 미만 근로자가 3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반대로 10년 이상된 근로자의 비중은 17%로 가장 낮다.¹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

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오스트리아(9.6년), 핀란드(9.4년), 스웨덴·노르웨이(9.1년), 영국(8.2년), 스위스(8.1년), 덴마크(7.6년) 등이었다.¹⁵⁾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비율 (고용안정성 지수.), 한국은 25%로 전체 국가 중 최하위다. 이런 지표를 보면 왜 한국사람들이 한국을 경쟁사회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불안하면 모두가 거의 매일 심각한 경쟁, 즉 죽이고 죽임일 당하는 사실상의 생존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율이나 조절, 혹은 경제전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작동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모습이다. 고용불안의 다른 지표는 노조 조직률이다. 한국의 노조조직률, 그리고 노조의 교섭이 포괄되는 노동인력역시 OECD 최하 수준이다. 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노조교섭이 포괄하는 노동자 역시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90%는 노조의 보호, 즉 고용조건이나 임금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진 셈이다. 즉 노조조직율에서도 경쟁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세계행복도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은 5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51위, 한국,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대만은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사회적지지 부분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다. 이것은 남미국가와 크게 대비되었다. 국민소득은 대부분 한국보다 낮았으나 사회적 지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즉 가족, 이웃, 친척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이들을 지탱시켜준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앞의 조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한국인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사회적 관계가 매우 취약하다. 경쟁의 피곤함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럼 교육, 주택, 의료 등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비율을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치원, 탁아소 등 보육시설과 노인 복지 시설의 경우도 국.공립의 비율은 20%를 넘지 못한다. 대학 교육의 경우 사립대학의 비율, 학생수의 비율에서 85% 정도가 사립이고 국 공립은 15%에 불과하다. 즉 교육과 복지에서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사기업 혹은 시장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에 의해 우리의 교육이나 보육이 거의 위탁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은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6% 정도에 불과해서 한국인들은 주거 문제를 거의 시장에 의존한다.

모든 정치경제 사회연상은 하나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를 분리해서 살펴볼 수 없다. 사회시스템은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고, 또 국제정치, 국제경제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내재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 역시 사회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동, 복지, 교육 정책의 밀접도는 특히 더 높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20년동안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각종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도 크다. 그러나 국가 예산, 조세, 공공복지의

14) (장지연, 109)

15) (금재호, 2015.7.21 연합뉴스, 한국 고용불안 OECD 최고 수준...평균 근속연수 5.6년)

비율, 노동시장의 규제, 노동조합 조직률 등 이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매우 시장주의 국가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이러한 구조의 현상적 표현일 따름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 국가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수성은 자유주의와 특권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다. 즉 노동이나 조직된 대항세력에 대해서는 극히 억압적이고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나, 경제적 강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매우 느슨하고, 약자들은 시장의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다. 특권과 이중화가 이러한 구조를 매우 잘 설명해 준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경제문제, 혹은 안보문제로만 보는 정부의 기본 시각과 정책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전- 개발독재 시절에 추격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그것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발독재 시절의 관성은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즉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선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했으나 관료들은 기존의 경제/안보의 관성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국가 내의 경제, 사회적 과제는 시장적 방식 혹은 공공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제도 그렇지만 교육, 주거, 복지 문제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혹은 공공 부문이 개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교육은 국가의 이념, 가치 목표, 질 높은 노동력 육성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거는 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며,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다른 상품과 달리 탄력성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 역시 국가의 전체적인 노동력 재생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과거 냉전시절과 신자유주의 시절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사회성 혹은 집단성의 해체다. 과거에 그것은 폭력적으로 억압 해체되었으나 90년대 이후 그것은 법과 정책에 의해 해체되었다. 보수세력은 언제나 승리자였고, 노동세력은 언제나 패배자였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에 대립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다. 한국과 같은 주변국은 케인즈주의 단계를 거친 적이 없다. 식민지 냉전과 신자유주의는 연속적이다. 그것은 성장주의다. 모든 것은 경제성장주의로 통한다. 경쟁력과 성장주의는 같은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성장주의로 귀결된다.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산업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경제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벌에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노사타협을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것은 투자자를 모으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자는 논리로 간다. 과연 그들이 투자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도 소비자와 투자자를 모으려는 노력에 종속된다. 16)

3) 개혁의 기본 방향

- 무엇을 위한 정형인가? 안보인가 경제성장인가? 국민복지인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인가?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국가가 모델로 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지구상의 어떤 국가인가? 이런 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그것을

16) 웬디 브라운, 앞의 책, 31쪽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정부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참여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외환위기 20년 동안의 정부는 결국 민주주의, 공정성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 기업가적 정부, 탈규제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기본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개발독재 시절의 성장주의 정부와 기본적으로 연속성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성장'의 담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성장은 무엇인가? 포용적 성장은 복지, 삶의 질, 형평성에 어느정도의 가치와 비중을 두는가?

*** 세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나?**

- 신자유주의의 후퇴 국면, 지구적 불평등의 시기
- 금융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괴리, 지구적 포퓰리즘의 시대
-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축소와 소멸의 시대
- 미국의 패권 축소와 국가주의, 미중 패권 경쟁 격화
- 지구 환경위기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의 시기

- 기업국가, 혹은 기업가적 정부는 국민적 자원을 기업일반이 아닌 '대기업'에 몰아주고 그들의 동력으로 국민적 부의 향상을 지향했다. 과연 그 목표는 성취되었는가? 모든 경제사회지표는 이전 20년 동안 불평등과 부의 편중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결국 부는 몰아주었지만, 성장은 물론 고용의 창출도 점점 어려워졌고 국민적 통합과 신뢰는 형편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부패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하락해 한국은 거의 후발국가 수준으로 수퇴한 것이 아닌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GDP의 성장, 평균적인 국민소득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과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 거의 실증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국가 예산의 40%를 기업에 몰아주고, 대기업에 각종의 면세, 특혜를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

- 노무현 정부 수립 전후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근본적인 체제전환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 전환은 이중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개발독재 시절의 재벌주도의 경제 성장→낙수효과로 중소기업 육성, 기업내에서의 평생 고용→교육을 통한 지위상승→결혼과 가족복지→퇴직금.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으로 집약되는 그 간의 한국의 사회경제 메카니즘이 저성장→불완전 고용→교육의 계층상승 기능 중단→결혼불능과 가족복지 붕괴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53년 체제'라 부를 수 있는 분단.반공, 북한적대와 안보지상주의→흡수통일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탈냉전과 미국의 전략변화→지구적인 패권구도의 균열, 중국의 부흥과 일본의 보수화→남북화해, 평화 통일 요청→동북아 새 평화질서 및 인간안보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양극화와 불평등, 기업의 투자부진과 경제침체, 저출산과 소비저하, 지방의 붕괴 등 위기상태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핵심 국가 기관의 헌정 문란, 기업

과 정치 부패, 언론의 신뢰상실, 정의 상실, 도덕 해체 현상 등이 노골화되었다. 그래서 오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길게는 한 세기 짧게 잡아도 적어도 3,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정치사회 개혁을 필요로 한다. 물론 동아시아형 주변부 신자유주의 한국은 단순히 신유주의 질서 일반을 극복하는 과제와 더불어 식민지, 냉전을 거치느라 제대로 꼴을 갖추지 못했던 근대 주권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포함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분단체제의 극복, 즉 남북한 화해 및 통일과 연동되어 있다. 정치개혁과 선거 승리만으로는 결코 정치와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선거와 정당정치 혁신은 정치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지만, 정치위의 정치, 즉 사회권력의 분배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정책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한국의 '기업사회'에서는 기업권력이 정치권력 위에 있다.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기업권력의 강화에 적극 기여했다. 기업권력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정치권력을 교체하더라도 그 정권은 정부 위의 '그림자 정부'에 의해 포획될 것이다.

- 정부는 기업이 아니고, 공무원도 기업가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관료는 CEO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운영에는 민간기업 운영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¹⁷⁾ 정부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 공공성은 국민다수의 요구와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고, 당장의 요구가 아닌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도 아니다. 정부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나, 강제력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만큼 특정 사적 이해에 휘둘러 국민 다수자의 이익과 요구를 배반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적 부패는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입안 집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부는 무엇보다 힘 있는 정부여야 한다. 힘있는 정부는 신뢰받는 정부이고 가용자원(예산)이 풍부하게 확보된 정부다. 신뢰는 법과 행정 집행의 공정성, 관료들의 특권 폐지가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고, 가용자원의 확대는 조세부담률의 증대로 가능하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의 증대 역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는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신뢰와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익집단이 발호하고, 특정 힘있는 이익집단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그런 이익집단과 부패로 얽히면 신뢰는 더욱 상실된다. 민주화이후이 이 악순환은 더 커졌다. 한국정부의 신뢰 수준은 OECD 하위권이 고 15-29세의 신뢰수준은 칠레, 그리스 등과 더불어 최하위권이다.¹⁸⁾ 부패한 정부는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정부다. 신뢰의 회복은 국가의 정책 목표나 방향이 무엇이든간에 반드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공무원이 위(인사권자)보다는 아래(국민)를 겁을 내면서 행정에 임할 수 있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특권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개혁의 반은 이룬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매우 어렵다. 조선 500년, 근대 100년을 거치면서도 아직 우리는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기업가형 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

17) 윤성식,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5. 110쪽

18) 조선일보, 2017.8.13

라, 오히려 개발독재형 유착구조와 신자유주의적인 유착을 가장 부정적인 방식으로 결합, 강화시켰다. 그래서 지난 20년 간 관료특권은 더 커졌고, 관료부패는 줄어들지 않았다.

- 국민 여러 집단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 제도, 정책과 환경의 산물이다. 이익을 전제로 수동적으로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이익을 재정회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만이 아니라 지속적 생존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익에만 기초한 참여는 사회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결국 자신도 파괴한다. 정책은 잠재적 자발성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비용을 발생시킨 다음 조세와 분배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비용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4) 구체적인 혁신의 과제

- 헌법개정(기본권, 분권과 자치, 정부 형태), 선거법 개정(비례대표의 확대), 시민참여의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도입(국민소환과 국민발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등 전제

-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의 국가의 기둥이다. 경제관련 부처가 지대추구 세력(부동산, 재벌특권, 대기업노조)의 부당한 부를 국민으로 이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외교 안보 국방관련 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처의 모든 개혁은 빛이 바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경제정책일 것이다. 산업, 금융, 부동산 정책을 그 중 가장 중요하다.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연동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양자의 정책 목표는 다르다. 사회정책은 사회통합과 사회의 복원이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제대로 되면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나, 당장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 지난 개발독재 시절 지금까지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시녀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분열되고 파괴되었으며 이제는 사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특히 사회정책에 대해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정책의 경우 통합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의 조정 정도의 역할을 넘어서는 국가 사회정책 위원회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을 총리 직속으로 두는 것을 어떻게? 교육/노동/복지/여성가족부의 공통 업무를 일상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

- 양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소신을 갖고서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공무

원 조직에서 토론을 통한 정책의 수립은 불가능한가?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은 직업 관료들 위에서 손바닥 위에서 돌다가 사라지는 관행은 언제 없어질 것인가?

- 공익제보자 보호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직제보자(내부고발자)들이 평소에 문제를 지적하고, 양심선언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큰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오프라인 ‘고발센터’를 만들어 지난 4년(이명박 정권 포함 9년) 동안의 공권력 파행의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이 임명한 기관장에 의해 조직이 어떻게 망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었는지를 증언할 수도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¹⁹⁾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용산 참사, 박근혜의 국정원 수사 방해, 국가기밀 유출, 세월호 수사방해, 국정교과서, 백남기 사망, 국정원의 관변시민단체 지원, 재벌의 K 미르 재단 각출 등의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와 달리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각종 생명권 침해, 헌정 유린 사태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조사 이후 관련자 처벌과 재산 환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삼성이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 관료조직의 감시와 통제는 힘있는 정당이 있어야 가능하다(막스 베버). 그런데 정당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누가 해야 하나? 즉 정당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강화만이 답인데, 시민사회의 강화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 공유정부(김광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문위원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위원회의 활성화가 그 답이 될 수 있을까? 사회적 합의기구의 강화가 일차적인 답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세력은 노동자 일반을 대변하지 못한다. 결국 반쪽만의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단위가 필요하다. 조직노동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루스벨트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대한 미조직 세력을 조직화하거나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단의 활성화, 기부관련 법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노동세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험한 노동회의소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은 가장 거대한 이익집단이다. 공무원은 자체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도 외면할 수 있고,²⁰⁾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붕괴시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해 단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국민에게는 이익이 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쌀 한 톨도 생산하지 못하는”(성호 이익) 공무원은 생산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 위에 군림

19) 내부제보자실천운동 단체가 2017년 1월 16일 발족했다.

20) 윤석식, 앞의 책, 219쪽

하여 그들의 고크혈을 짊 수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 현상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권을 위해 뭉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채용과정의 변화 (행정고시 제도 폐지 등)가 필요하고, 거의 실패한 정책인 개방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공이 늘공을 이길 수는 없다. 결국 조직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1> “사회 각 영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동춘, 국회입법조사처, 2017 여름, VOL. 33)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과 2016년 12월 이후 4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촛불시위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탄생했다. 촛불시위 참가자는 물론 그것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지난 4년 동안의 침묵에서 깨어나 시민의 힘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 자신감은 장차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언론과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잠재력과 힘에 대해 새삼스럽게 감탄사를 연발했다. 참여대중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했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정경유착 등 해묵은 적폐의 청산을 원한다.

박근혜 정권,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구조 실패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크게 촉발되었다. 그것은 인위적 위험 즉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쓰라리게 체험한 결과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을 외친 청년, 학생들은 ‘헬 조선’으로 집약된 경쟁만능의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한편 촛불시위에는 개발독재와 민주화로 집약된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경제사회 질서를 수립하자는 열망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요구를 넘어서서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정착된 재벌체제, 정경유착, 관료주의, 중앙집권, 효율성 만능, 노동배제 등의 법, 제도, 관행들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막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비상사태,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박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경제사회적 개혁 과제를 또 다시 떠안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개발독재시절의 성장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위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정치경제의 특성과 사회정책의 과제

7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는 국가가 재벌을 앞장세워 추진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산업구조는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되었고,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전제위에서 고용과 임금이 최고의 복지로 간주되었고, 재벌 대기업 입사와 승진, 평생고용과 노후보장은 한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경로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은 양극화, 이중화되어, 30대 재벌 기업, 공기업, 정부에 고용된 상위 20% 정도를 제외한 80%의 대졸, 고졸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거 자영업자로 변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이들 노동자들은 영세자영업가 되어 몰락하거나, 더 열악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를 반복하였다. 청년들은 서비스업의 단기 고용, 비정규 불안전 고용을 반복하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관료주도와 공기업의 특권이 유지되는 신자유주의와 재벌구조에서 기인한 경제와 산업의 이중구조화는 노동의 양극화와 이중구조화를 가져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그 핵심이다. 비정규직 규모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되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는 한국식 기업별 노조체제, 대기업이 주도한 노동운동이 임금인상 위주의 노조운동을 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의 한국은 상위 1%가 소득의 12%를,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점하고 있어서 미국 멕시코 등과 더불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40%(실업자 포함)가 연 1천만을 벌지 못하며, 60%는 연 2천만을 벌지 못한다. 비정규직 중 3대 모험 미가입자 비율도 70% 정도다. 이들은 빈곤층은 기업복지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고용과 복지가 직결되어 있는 한국의 기업, 가족복지 체제 하에서 실업 혹은 불안전 고용 상태는 곧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것은 높은 노인 자살률로 직결된다.

교육, 복지, 주택, 의료 영역에서의 취약한 공공성이 이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기초연금의 액수가 너무 낮고 실업보험의 경우 실업상태에서 안전과 재취업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보편주의적인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 공공보육이 취약하고 고등교육은 거의 사부담으로 해결된다. 한국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와 연계된 혜택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복지 확충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규모가 매우 낮은데서 기인한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 예산 중 복지비 지출액수는 물론 GDP중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GDP 중 사회지출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 복지, 혹은 저복지 국가에 속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한국의 교육, 특히 대학의 서열구조,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와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한국의 학력주의, 학벌주의는 노동양극화의 반영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한국의 입시만능 교육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와 사회적 연대감 해체의 다른 표현이다. 살인적인 교육경쟁, 학교의 입시학원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출신분적 차별, 하층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체의 연대 혹은 정당 등 정치적 대표체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받거나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사회적 차별, 불안 노동,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학벌 취득 혹은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할 가장 중요한 내외적인 조건은 우선 고성장의 시대가 끝났으

며, 사회정책이 없는 경제성장이 고용과 복지를 실현하던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아마 평생 고용, 안정된 고용의 시대가 다시 오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여권의 신장으로 남성가장을 부양자로 설정하는 모든 사회정책의 모델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고용조건 변화와 불안정,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는 우리가 사회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아야 할 변수들이다.

3.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

사회정책은 사회적 권리, 즉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과 그것을 통해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시민권 확대를 지향한다.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연동되어 있지만 다른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정책은 크게 보아 경제정책의 시녀에 불과했으며, 사회정책의 궁극의 이상 즉 사회적 권리의 제고를 통한 사회참여, 그것을 통한 사회통합은 안보와 경제에 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복지, 노동, 교육, 가족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것으로 접근되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모두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사고, 즉 자유주의 복지의 사고와 정책에 크게 경도되어 있었다. 이것은 노동 영역에서도 일자리의 질보다는 일자리 자체를 늘이는데 치중하거나, 교육에서도 경쟁과 변별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두어졌다. 즉 민주주의, 개방, 자율화가 중시되었으나, 그것은 자유화, 정확히 말하면 시장화의 요구에 압도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 복지국가의 초입에 들어서지도 않은 마당에 “서구에서도 복지국가는 과거 이야기고 다시 경제다”라는 담론이 지배했다.

오늘 새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훨씬 더 엄중하고 급박하다. 신자유주의의 가치가 크게 축소된 저성장 경제 질서, 더 심각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증세를 통한 사회적 지출은 더 확대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사회정책의 모델을 마련하여 장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유럽식의 조정 시장경제, 혹은 합의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 다수제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 남북한이 계속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구조 하에서 국가가 시민의 안전, 생활의 보호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기도 어렵다. 즉 복지국가는 평화국가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물론 서유럽형의 복지국가를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재고해 봐야 한다. 한국은 기존의 고용관행, 교육제도, 복지 지출 등 모든 점에서 거의 앵글로 색슨형 자본주의에 훨씬 가까운 형태로 이미 경로가 거의 정착되었으며, 후발국의 특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서 정부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고, 분단/준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보, 안전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만큼 중요하다. 즉 안전의 문제를 무시하는 복지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즉 복지 문제는 안전, 사회적 신뢰, 그리고 평화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을 통합적, 장기적 관점에서 구상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위원회, 협의체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 각 부서간의 칸막이가 제거되어야 한다.

<참고자료2>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김동춘, 한겨레신문, 2017.3.21.)

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하는 일은 많아도 지금처럼 콜센터 실습 중인 학생이 자살하거나, 구의역에서 일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에 끼여 죽는 일은 없었다.

지금 세계는 1% 부자들이 99%를 약탈하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유독 한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혹하고, 이것은 바로 비인간적인 교육과 살인적인 노동 현상이 하나로 얽혀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과도한 입시만능 교육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와 사회적 연대감 해체의 다른 표현이다. 학교의 입시학원화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차별과 불안정, 취업 절벽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상위 10%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특권적 지위를 얻고, 나머지 90%가 불안한 저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 현장의 위험과 폭력은 그냥 감내해야 할 숙명이 되고, 자녀를 상위 10%의 직장에 밀어 넣을 수 있다면, 노후 복지를 희생하고서라도 자녀 교육 투자에 나서겠다는 학부모의 출혈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시 과열은 반(反)노동,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현실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약자가 노조나 정치적 대표체를 통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은 140만원 수입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터에 나갔다. 이제 스카이(SKY) 대학은 거의 부유한 가정 출신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조차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불안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명문대 학벌, 공무원 합격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명제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고임금을 얻은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내 식으로 표현하면 노동 문제를 교육, 복지, 재벌 문제와 한 세트에 보지 못하게 만든 기업노조주의에 원인이 있다. 노동계의 책임이 2라면, 단기 이윤 확보에만 매진해온 재벌 대기업, 교육과 노동을 경제의 부속품 정도로만 보는 경제관료, 국가의 장기적 정책에 무관심한 야당에는 8의 책임이 있다.

즉 비정규직 사용제한, 임금격차 축소, 노동시간 단축, 노조조직률 제고 등 노동의 절망을 해소하자는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 논리의 반격에 부딪힐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 정상화, 학벌주의 극복 등 교육 관련 정책안도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 일터의 민주화와 노동의 자력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인위적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확충된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일자리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지금 우리는 87년이 성취한 반쪽의 민주화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적 요구는 더 심층적이고 엄중해서, 한국은 사실 8·15 해방 시점과 맞먹을 정도의 체제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 얻기 위한 공약에 매달리거나 지역적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 차별과 입시 과열이라는 ‘생존 전쟁’ 체제를 넘어서서 기회가 열려 있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시민의 능동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회정책은 하나의 세트에 묶여 있다. 그래서 각각을 떼어서 해결할 수 없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은 시작하다가 말 것이다. 장차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국가사회정책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교회의 선교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본문: 요 3:16, 요 17:18, 엡 1:23

서론

한국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전통으로 시작하였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론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이해와 교회론에 있어서 세상과 단절된 방주적 교회관을 형성해왔다. 이런 신앙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 교회적 관점으로 축소하는 역기능을 낳았다. 한국교회의 신학과 구조적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70-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이러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교회관”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교회를 강조함으로 개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때의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교회의 신뢰와 사회적 공신력이 심히 약화된 상태에서 여전히 교회중심적 패러다임은 극복되어야 할 옛 패러다임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어느 목회자의 지적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하여 “달려진 교회이해와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신학적, 선교학적 시도가 있는데 그 중 한 주제가 “선교적 교회론”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진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이해한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과 상황으로 향한다. 선교는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을 기준으로 한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세상 전체가 선교현장이다. 교회는 먼 해외 지역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도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비기독교사회인 한국사회 안에서 교회의 존재비중은 서구교회와 완전히 다르다.

한국상황에서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기독교 사회인 한국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올바른 교회관과 선교관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복음화는 교회들간에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지역복음화는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출발점이다. 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과 열린 관계를 통해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어진 선교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올바른 교회관, 선교관에 기초하여 건강한 교회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교회들의 협력과, 한국 사회 안에서 교파주의를 극복한 연합과 세계교회들과 함께 오늘의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1. 한국교회의 신앙과 선교적 특징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교회를 강조하는 신앙관을 형성하였다. 이런 특징은 일반적으로 비기독교 사회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신생교회가 있는 아시아 지역교회 중에서도 교회중심적 신앙관은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선교역사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국내적으로 복음화와 교회성장을 그리고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교회는 선교역사에서 삼자원리(자치, 자전, 자립)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된 교회이며 선교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삼자원리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것은 삼자원리가 지나치게 개교회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결국 개교회주의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복음화와 해외선교활동을 주도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특징은 교회성장 이면의 어두운 면을 초래했다. 개교회주의는 지역사회로부터 교회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같은 지체들과 경쟁적 관계도 불사하였다. 개교회 중심의 선교활동은 지역에 속한 개교회의 활발한 선교활동을 통하여 교회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교파나 지역 교회간에 지나친 경쟁적 의식을 유발시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의 한국교회에 관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와 평가들을 볼 수 있다. 신생교회로서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율이 약 20% 정도에 미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 노회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갖는 신뢰도는 비단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기윤실 보고서) 일상적 차원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적 평가를 피부로 실감한다. 지역사회에서 전도는 아주 힘든 과제가 되었으며 교회개혁은 비현실적으

로 보인다. 교회 밖으로부터의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교회 안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는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교회의 희망의 근거는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란 사실이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며(사 43: 10) 이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엡1:23) 세상의 주관자인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 일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 공동체로서 자기인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선교적 차원은 전도활동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과 같은 비기독교사회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말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메신저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실을 소홀히 한 바 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의 존재와 매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의 내용이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면 전하는 내용 또한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전도를 향한 우리의 열심은 진실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말뿐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실천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와 세상을 품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 열 가지 테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 패러다임이 20세기 중반부터 서구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대한 교회론적, 선교론적 응답이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선교와 교회의 이해로부터 교회의 질과 특성을 선교로 이해하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목회”로 지역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회와 분리되어 활동하는 교회 제도에서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교인들을 보살피는 “교회 안의 목회활동”으로 충분하였다. 이런 교회를 “모이는 교회 중심의 형태”로 지칭한다. 특히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서구 교회상황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로도 교인들이 모이고 운영에 문제가 없었을 때나, 한국교회의 경우, 70-80년대 급성장하여 증가하는 교인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의 목회활동으로 인하여 목회자는 교회 밖에 관심을 둘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다. 교회 밖에서의 활동은 주로 교인들의 전도활동을 통해 진행되었다.

오늘의 목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마을 전체를 목회 현장으로 접근하는 선교적 목회 재구성해야 패러다임으로 재 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교회가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장 시대의 “오는 구조”(come-structure)로부터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가는 구

조”(go-structure)로 목회 방향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선교적 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회복과 마을 목회를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목회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권으로부터 운동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 1)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공교회와 함께 지역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중요시 하는 운동이다.
- 2) 선교적 교회는 활동(doing)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존재(being)와 정체성 자체가 세상을 향해 파송 받았다는 선교적 공동체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 3)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세상)와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신앙과 선교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선교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 4)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친교(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폭 넓은 차원의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 5) 선교적 교회는 해외 특정지역만을 선교현장으로 한정하는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넘어서 전 세계를 선교현장으로 간주하되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간주하고 출발하는 운동이다.
- 6)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을 넘어서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 받았다는, 평신도 신학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운동이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관계에 있다.(성도교회론)
- 7) 선교적 교회는 특정한 활동 중심의 선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상을 선교현장으로 간주하고 활동하는 운동이다.
- 8)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두 차원-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잡힌 이해와 실천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 9) 선교적 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성장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속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과 협력하는 지역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이다.
- 10) 선교적 교회는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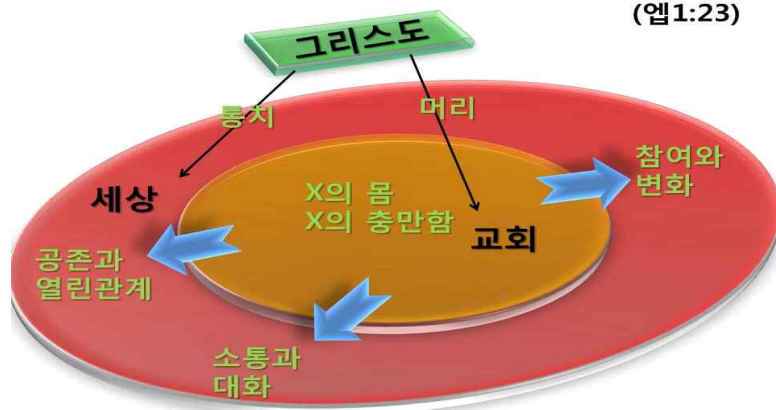
3. 선교적 교회론의 성서적 근거

바울은 그의 교회론의 중심을 기록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을 이렇게 표현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¹⁾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만물)과의 관계에서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²⁾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공동체로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약속의 공동체이다. 교회와 세상은 그 특성상 구분되지만 세상의 통치자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선교적 관계를 갖게 된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적어도 세 가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공존과 열린 관계**를 갖는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열린 공동체라는 뜻이다. 둘째, 교회는 **소통과 대화**의 관계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대화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참여를 통해 변화**를 지향하는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이미 “세상을 향한 운동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하는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기초한 생명공동체 (엡1:23)



1)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장흥길, “신약성격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장흥길, 임성빈 책임편집, 건강한 교회 세우기. 교회되게, 교회답게 (서울: 한지터, 2012), 45-59.
 2) 이 본문의 탁월한 주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Petr Pokorný,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Theologischer Hand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10/I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87-95.

4. 선교적 교회실천의 실제적 원리

1) 교회의 건물 안에 머무는 “닫힌 목회”로부터 지역사회로 나가는 “선교적 목회 (선교적 목회 리더십)”

기존의 목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모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의 활동이다. 특히 성장시대에 목회자는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해 모이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목회활동을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교회 밖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는 이런 목회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하면 교회 안에 스스로 갇힌 닫힌 목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선교적 목회를 할 수 있다. 목회자의 관심이 지역사회를 향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목회현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목회의 대상 역시 교인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미래의 주민들을 미래의 교인으로 여기며 그들과 교제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목회를 추구한다. 이런 목회는 선교적 목회로 부를 수 있다. 목회자는 선교적 목회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음성 생극교회 사례, 국수교회의 사례)

2)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 선교적 그리스도인

한국의 지역교회는 모이는 교회형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으로 소속되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결과적으로 교인으로서의 훌륭한데 지역주민으로는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교인의 정체성 역시 선교적 교회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에서 여러가지로 잘 준비되고 훈련받은 성도나 제직의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좋은 교인은 좋은 시민(주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송악교회, 흥천 도심리 교회 사례)

3)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로부터 “친교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

한국의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전도와 봉사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한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지역의 봉사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전도활동이나 총동원 전도대회 등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의미는 평소에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거나, 교인들이 주민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회의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이런 형태를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활동에는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진행된다. 오늘날 이런 형태를 “친교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과 주민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평소에 이해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지역사회를 위한(for)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with)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마을 목회를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친교 안에 있는 선교와 전도활동을 지향한다. 교제는

진정성에 기초한 선교이다.(성암교회, 한남제일교회 사례)

4)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역사회에 맞추는 선교활동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은 교회가 주도하고 원해서 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 선교적 교회와 거기에 기초한 선교적 목회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선교적 목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삭개오, 병자들 등)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마을 목회를 실천하는 지역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지역사회가 보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이것을 필요성의 원리라고 부른다.(송악교회, 춘천 동부교회 등 대부분의 마을 교회들)

5) 플랫폼(마당)으로서의 교회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지역을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요즘은 플랫폼을 인터넷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그 기능을 소개한다. 첫째 연결기능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점으로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며, 둘째 상호 성장하는 기능이다. 콘텐츠 공급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콘텐츠의 질이 좋아진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³⁾ 플랫폼의 기능은 지역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에서 관계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지역교회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에 자발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교육, 농업, 마을 주민과의 화해, 소외 노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필요성에 부응하는 활동들은 다양하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행하는 플랫폼(마당)의 역할을 세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대화하며 소통하는 관계를 이룬다. 셋째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변화를 기대한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화해의 직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교의 백성이 된다.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충돌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와 조정, 화해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그것을

3) 박승남, 『플랫폼 선교를 통한 중국선교』, 미간행출판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선교신학 전공(2017), 19-22

위해 교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총만함을 나누고 공유하는 복음의 실천은 이러한 관계와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된다.(보령 시온교회, 새롬교회 사례)

6)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목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대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은 지역교회에 속한 것이다. 물론 교회가 가진 자원이 많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나 지역사회와 깊은 관심과 협력체제를 가진 교회라면 지역사회나 기관들이 가진 자원을 마을 목회를 위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평소에 지역교회목회자나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긴밀한 교제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교회가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교회 혼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식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시민 단체 또는 운동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성암교회, 한남제일교회)

7) **개교회 성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지역교회들의 협력: 지역 에큐메니즘**

한국교회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성장은 대부분 개교회성장을 지향해왔다. 특히 70-80년대 급성장 시기에 형성된 개교회중심의 교회성장형태가 오늘의 교회특징으로 굳어졌다. 이런 성장방식은 지역사회 전체 보다는 개교회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저성장 시대에 개교회를 넘어 지역 전체를 복음화 하는 일에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교회들이 함께 하고 서로 친교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작은 교회일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보완하는 좋은 협력교회가 된다. 지역복음화를 위해 선교전략도 함께 개발하고,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교회는 저마다 가진 은사와 자원을 함께함으로 지역복음화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과 지치지 않고 의미와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척교회와 지역교회들의 푸드뱅크를 위한 협력, 후암동 지역 8개 교회 협력, 태백지역교회, 제주사랑 선교회 등의 사례)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선교적 목회는 선교사가 타문화권 선교현장에 접근하는 방식을 국내 목회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첫째 제도안에 익숙한 활동으로부터 선교의 운동성을 회복한다.

둘째 선교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지역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주민들과-무신론, 타종교와 상관없이-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하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 자신의 관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섯째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를 지역 주민들과의 코이노니아와 함께 실천하는 일이다.

결론

한국사회는 점점 세속화 되며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반면 반전할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국교회의 명맥을 이어갈 다음 세대는 눈에 띄게 줄어간다. 청년 대학부 층의 전도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현주소이다. 과연 한국교회는 사그라지는 불꽃처럼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약속 위에 세워졌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칠천명의 남은자와 같이 지역사회 속에 누룩처럼 스며들어가며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교회들이 있다. 필자는 교회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교회들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진 풍성한 삶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 있는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총만함(엡 1:23)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시대를 일깨우고, 사랑과 정이 오고 가는 진정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대에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교회현장을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선교적 교회와 목회철학 :

전통적 교회가 선교적교회로 변화하기

(마을로의 교회를 꿈꾸며)

오창우 목사(한남제일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교회는 문을 닫게 생겼다. 아주 믿음 없는 이야기를 목사가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우리는 늘어가는 가나안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백성이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할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통적교회인 우리의 교회는 과연 사회적으로 불어오는 교회를 혐오하는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리더들의 담론을 무엇인가? 지난 회기 우리 총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의 주제로 한 해를 살았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총회장은 '영적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의 주제로 새로운 해를 살기로 천명했다. 약해진 영적상태를 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시 교회 속으로 가자는 말이 되는 것인가? 반문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총회장의 주제선정에는 한국교회를 살리고자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적교회나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는가? 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살리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이다. 당신의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제자훈련을 넘어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펼 수 있는 장!, 필드가 무엇인가?

한남제일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론을 30년 전부터 겪고 있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교인들뿐이라고 하면 말이 심한가? 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그 교회 앞에서 한남제일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분이 지역주민인지 아니면 이태원을 찾아온 손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날은 그랬다. 교회 자체도 높은 담장과 높은 대문을 하고 있었기에 가까이서는 예배당을 볼 수 없었다. 대문 옆에 수풀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교회가 지역에서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당회에 드렸을 때 교회는 예배당이 흰히 보이도록 과감히 담장과 담장을 헐어 버렸다.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다.

한남제일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했다. 지난 33년을 한남제일 교회라는 한 곳에서 목회한 것을 정리해 준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과 한국일교수님의 말씀이다. 한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목회가 선교적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기에 과감히 선교적교회를 위한 목회철학이라고 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작은 목회이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

A. 한남제일교회의 33년 전 이야기..

1985년 12월 5일 교회에 부임했다. 같은 서울하늘 아래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이태원에 있는 한남제일교회..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온누리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다. 하용조목사님의 목회처럼..우리교회만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했지만 용이하지 않았다. 교인들의 중직들은 거의 외부에 살았고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초신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제자훈련과 같이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중직자들은 멀어서 안되고 지역은 생업 등으로 쉽지 않았다.

이태원의 한남제일교회이다. 그래서 이태원은 당시 술집과 디스코텍과 같은 유흥가로 유명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이 결코 자부심이 될 수 없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우리아이들이 자랄 때, 벽에다가 메뉴하고는 소주 얼마 맥주 얼마 안주 일절 24시간 영업..써놓고는 쟁반에 컵을 받쳐 들고 “뭐 드실래요?” 하고 노는 장명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하다. 이는 지역 교인들의 가정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에게 특수목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를 보통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엄청난 충격이다. 보통사람처럼..그래서 그렇게 보통목회를 하게 된 것이다.

B. 한남제일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꿈꾸던 일들..목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돌아보니까 그렇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1.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2. 교인들이 지역의 자부심을 되기
3.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되기 등이다.

한남제일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선교적교회의 한 모델이 되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다. 다만 목회현장에서 겪는 상황들에 대해 대처했던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지금에 와서 보니 선교적교회가 되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선교적교회에 대한 용어는 몰랐지만 어려서부터 내 마음속에는 이미 선교적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어려서 교회마당이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학교를 갖다 오면 자연히

교회마당에 모여 그네도 타고 모래집짓기하고 딱지치기도 하며 놀았다. 심방을 다녀오시는 목사님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담으시면서 잘 놀라고 격려해 주셨다. 교회는 공부도 하게 해 주었다.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학용품으로 연필과 공책 크레파스를 주었다.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학用品을 부족함이 없었다. 교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기에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부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목사님의 주례로 당시는 정부가 결혼식 등에서 허례허식 근절방침에 의해 결혼식 피로연을 못하게 했으니 교회의 고마움은 크다. 나에게 교회와 집은 하나였다. 생활의 전부가 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곳이 교회이다. 자연히 나의 목회에서 교회는..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터일뿐더러 생활터이기도 하다. 그런 교회를 지향했으니..지금의 선교적 교회는 책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신앙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준 교회가 미지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홀리신학교 목회학 박사 논문은 “지역사회에 교회와 사회의 접촉점(지도 김기홍박사)”이다. 벌써 한남제일교회를 목회한지 10년이 넘는 시점에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당시 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예배당 건물을 단순히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즉 나누어 주시는 몸인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고 설계를 했다. 설계된 예배당은 지하3층 지상7층으로 지하에는 예배당겸 공연장, 지상 1층은 주차장겸 장례식장(강대와 의자만 놓으면 되니까..) 2층은 사무실과 유치원을 3층은 아동부실과 공부방을 4층은 중고등부실과 독서실을 5층은 청년부실과 공연장을 6층은 식당과 남녀선교회실을..7층은 게스트하우스와 사택을(담임목사인 내가 사찰도 하려고 했다) 8층 옥상은 정원카페와 야외 공연장을 하려고 했다. 모두가 지역의 주민과 함께 나누어 쓰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처럼 나눔의 교회로서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사회가 만나는 지역의 센터가 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요즘들어 말하는 거점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있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

한국일교수의 만남은 선교적교회로의 자리매김을 갖게 했다. 소망교회 포럼을 위해 한교수님과 두분의 교수님을 만나 목회방향이나 리더십과 삶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동문모임에서 서로를 소개하는 중에 한남제일교회의 목회를 지역의 센터가 되는 건물을 지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발표했다. 그 때, 한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 생각이 목사님 자신의 생각입니까? 누구에게 지도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난 그 공부를 하려고 독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 후, 이를 기억하신 한 교수님이 찾아 오시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교수님은 기억력도 참 좋고 의리도 있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한교수님은 한남제일교회의 목회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크리스찬 아카데미 역시도 이런 선교적교회로서 한남제일교회의 목회철학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한남제일교회의 목회철학을 목회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B1. 목회철학

1. 지역에서 교회의 존재를 알게 하라!

-여러분의 교회는 지역에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처음 그 교회를 찾았을 때, 아무도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교회가 있는데도..지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유흥가요 술집동네라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도 내가 여기 있는데도 거기의 사람들이 나를 없는 것처럼 대한다면 어떨 것인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왕따..를 시킨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지역의 섬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바로 그때 그 교회였다. “한남제일교회가 어디에 잇죠?”처음 찾아가는 교회이기에 그것도 선보는 설교를 하러 수요일저녁에 찾아가는 초행길은 두렵다. 설교도 설교지만 일단은 늦지 않게 가는 것이 선을 보러가는 취준생(?)의 태도이다. 가는 길에 또 묻고 또 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느덧 교회 앞에까지 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물었다. “저 죄송하지만 한남제일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난감하여 주변을 두러보는 순간 교회가 눈앞에 들어왔다. 아니 교도소로 느껴졌다. 커다란 대문에 높은 담장까지..딱 교도소였다. 수풀로 갇혀져..있이 무성히 떨어져 늦가을의 교회가 주는 인상은 바로 아주 외로웠다. 정말..이다. 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있는 주변은 거의가 다 술집과 디스코텍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교인들 역시 관련된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다. 어쩌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다짐도 해보면서 말이다.

12월초, 불우이웃돕기쌀부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성탄의 계절에 교회에 부임한 것이 기회가 되었다. 동장을 찾아 부탁을 한다. “동장님, 제가 한남제일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동장님은 생각이상으로 반기면서 불우이웃돕기에 적극적이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장에게는 매년 겨울이면 불우이웃돕기후원을 받아야 하는 할당량이 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하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는가? 식량을 받을 분들을 선정하는데 그 자격기준이 분명했다. 나눔의 장소는 교회로 정해지자 당일날 받으실 분들이 찾아왔다. 동장이 나서니 동직원들이 거의 동원이 된다. 해당식구들의 통반장도 나선다. 나눔행사의 사회를 양보하자 동장은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목사는 인사말을 하라고 하라는 말에 “여러분, 저의 우리 교회의 소원은 교회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집값도

오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짧은 기도지만 그 자리에 모인 분들과 지역을 위해 진정을 담은 축복을 했다. 지역사회봉사를 잘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동장 등의 칭찬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날..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드린 쌀부대를 이고 골목길을 가는 행렬은 온 동네를 잔치분위기로 만들었다. “한남제일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보는 이들마다 칭찬을 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사역의 시작이다. 당연히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교회와 교인들은 확실히 알았기에 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눔 행사를 했다.

효도관광을 시작했다. 역시 같은 방법이다. 동회가 지역의 노인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이 분들을 모시고 두 시간 거리의 지역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동네가 부모 공경하는 축복된 동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관광회사에서 가장 좋은 차와 친절한 기사배정을 부탁했고 관광지에서 최고의 맛 집을 찾아 값도 비싼 음식을 대접했다. 온천욕도 해드리고..집으로 가실 때에는 며느리들을 위한 선물도 해드리고..지역의 정치인들도 선물과 인사를 드리는 등 그야말로 노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그 가정과 온 동네의 잔치를 했다.

지역사회봉사자위로회를 시작했다. 한남동사무소의 직원들과 동네와 거리의 환경미화원들, 한남파출소의 경찰들과 방법대원들, 이태원소방서의 소방대원들, 한남동우체국의 집배원들 등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고 선물을 드리며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치하했다. 물론 모든 연락과 초청은 동사무소가 앞장을 섰고 교회는 준비만 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지역을 위해 수고하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주민들을 대신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동장님이 나서서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함으로 동네에서 교회가 더 알려지고 있게 되었다.

수재민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다. 여름 장마철이면 산동네서 쏟아지는 비가 하수도를 메우다 못해 넘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 중에는 집 밑으로 흐르는 하수도가 낡아 방을 하나 쓸고 내려간 적도 있다. 낡은 지붕이 무너져 비가 쏟아졌고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교회는 교육관을 임시대피소로 제공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법적으로도 공공장소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생기면 교회는 임시 대피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은 이런 교회의 태도에 대단히 고마워한다. 동네에 교회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지금도 동장은 앞장서서 교회를 칭찬한다. “우리 동네는 교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일에 있어 목사님은 카드게임의 조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돕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원금은 4만원이었다. 연탄과 전기수도세를 낼 정도의 돈이다. 교회는 3만원의 보태기로 했다. 몇

년 후, 구청장의 제안으로 한남제일교회의 기초생활수급자지원을 전 구청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교회와 기업들이 함께 하여 용산한가족결연사업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한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아니 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는 것에 절박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도 아니지 않는가? 처음부터 어떻게 알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단순히 전단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에 교회의 존재를 강력하게 알릴 수가 없다.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예측하고 찾아가 돕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선교적교회라고 할 때..무엇보다 교회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일을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남제일교회는 이태원의 한남동에 있습니다.”알려야 한다. 교회가 그 곳에 있음을...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예수님은..당신의 존재를 이런 이웃돕기사역을 통해 알리셨다.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리셨다.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통해 교회의 존재와 그 의미를 알게 하는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교적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목회철학이다.

B2. 목회철학

2. 교인들이 교회에 자부심을 갖게 하라!

- 여러분의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
- 가장 지역적인 교회가 가장 세계적인 교회다!-

유흥가에 있는 한남제일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자부심이 있는가? 이태원이라는 지역은 그리 자부심이 있는 지역은 아니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인근 지역에는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교육적인 환경이 못 될 뿐 더러 주거환경 역시 일반적이지 못하다.

교회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때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이다.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니 아이들은 쟁반에 컵을 받쳐 가지고 “무엇을 드실래요?”하며 놀고 있었다. 벽에 보니 종이에 메뉴라고 써놓고는 그 밑에 소주 얼마, 맥주 얼마, 사이다 얼마..안주 일절, 24시간 영업 등을 써놓고 놀고 있었다. 과연 이런 모습이 6살, 3살의 어린 아이들, 그것도 목사의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러니 교인들의 자녀들은 어떨까? 언젠가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 청년이 어느 날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골목길을

가고 있다. 술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단다. ‘그렇게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그 아이가..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술집이고 디스코텍이고 화려한 네온사인 밑을 거니는 취객들이니..그럴 수 밖에, 교회사택의 문을 열면 키 크고 잘생긴 게이 놈(?)이 나온다. 비하해서가 아니라..현실이 그런 곳이다. 과연 이런 곳에서 살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태원에 산다는 것이 강남처럼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인근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꺼린다. 대학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을 넘어 보광동지역과는 또 다른 것이 우리 교회지역이다. 이태원에 있는 교회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자부심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다. 한편 교회자체도 교회가 큰 건물을 가졌거나 교인수가 많거나 그리고 유명인들이 있다거나..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 등을 보면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교회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많은 교인이나 유명인들이 별로 없을 뿐 더러 자기 자신들이 가진 소유 크기로 인하여 더 자부심을 못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마음에 교인들에게나..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다.

한남제일교회는 이태원에 있다. 한남제일교회의 지목은 한남동이지만 이태원 그 것도 유흥가의 중심가에 있다. 이태원은 국제적인 도시 아닌가? 외국인들이 이태원을 아주 선호한다. 88올림픽 때 선수들과 외국기자 등이 가장 많이 찾아온 곳이 바로 이태원이다. 그중에도 교회인근이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술집과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미8군이 가까이 있어 미군들이 많이 찾는 텍사스골목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슬람사원은 교회에서 잘 보인다. 이태원에 오면 하루 만에 남성여성의 양복을 만들어내는 양복점도 성행했다. OEM으로 만들어진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등 보세물건이나 외제사치품을 본뜬 짝퉁도 다 이태원에서 주로 팔렸다. 한남제일교회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도시에 한복판에 서있다. **이태원은 국제적인 도시이다. 그런 국제적인 도시 이면에는 슬픈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 타 지역에서 실패한 분들이 찾아와 살기가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일부 교인들 중에는 사연이 적지 않다. 우리는 불문율처럼 그 분의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그런 면에서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다. 과거에는 이층에 게이들이 여러 명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에 잘 생긴 청년이 도망을 치는 일도 있었는데 경찰이 잡으려온 조폭이었다. 한번은 장로님이 교인의 헌금을 집어던졌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분의 십일조였다. 그래서 교인들이 더 귀하다. 감사하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이들이 기특하기만 하다. 하지만 한남제일교회를 다니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강남의 소망교회를 다닌다! 명동의 영락교회를 다닌다! 이들 큰 교회들처럼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내 교회 한남제일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몇 점일까? 아직도 국제적인 도시만큼은 교인들에게 한남제일교회의 교인으로의 자부심을 주고 싶었다. 목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은..

이태원지역의 사업들과 지역교인들의 삶은 무관하지 않다. 대부분이 가난하다. 그

래서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살 것을 위해 목회를 한다. 지역교인 중에는 유흥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태원은 24시간 영업이 많았기에 어려운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일하여 돈을 벌 수 있었다. 자연히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은 별로 없다. 33년 전, 그러니까 1985년 이태원의 한남제일교회에 부임을 했다. 당시 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향락적인 곳에 위치해 있다. 저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그것도 중심가인..을지로 3가, 명동근처에서 자라서 변화가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태원의 문화는 가히 충격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내 역시 문화충격은 심했다. 아이들은 더 심했다. “교인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세계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입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태원길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볼 것이 아닙니까? 보게 합시다. 찾게 합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교회가 되게 합시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부자처럼 살 수 있게 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대를 동원하여 지역주민들과 친지들을 초청하는 음악회를 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에 부활절찬양제를 참가했다.** 교회창립35주년에는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단독으로 북한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했다.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을 했다. 공연장을 가득메울 뿐 아니라 수입도 많아 월드비전의 박창빈목사님을 통해 직접 유아원에 아이들의 기저귀 등 용품을 지원했다. 지금도 교인들의 가정에 가면 그 때 그 사진들이 유명한 화가의 명화이상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있다. 3년 전에는 전에는 용산구청대강당에서 푸드뱅크돕기 자선음악회를 했다. 이때 참석한 교회인근 빌딩의 주인은 교회를 다시 봤다면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와 목사를 대한다.

순천향 병원과 봉사활동 특히 호스피스병동의 자원봉사는 병원은 물론 보호자들로 하여금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게 함으로 교회와 교인들은 자부심을 갖게 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교인들 스스로가 봉사의 현장에 참여하면 할수록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해 진다는 사실이다. 생각나는 것은 오래 전이지만 서대문에 있는 결핵병원위로 방문을 10여년에 걸쳐 봉사를 했다. 병원인근에 위치한 베데스다 교회를 통한 봉사이다.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는 생활고로 인해 병원인근 산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 것이 폐병환자들의 삶이었다. 교회 여전도회 등은 이들이 먹을 쌀이나 마가린 등의 기름기있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위로할 때 오히려 힘을 얻었다. 일산에 있는 홀트 장애인시설에 가서 목욕봉사와 청소봉사 빨래봉사도 잊지 못할 일이다. “목사님,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나니..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는 음악회 등을 열어 불우이웃돕기를 꾸준히 실천했고 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남 더 힐이라는 고급주택단지 바로 옆에 구청이 지는 건물이 있다. 어르신 80명, 직원이 62명이다. 매우 규모가 있는 시설이

다. 구립한남어린이집과 방과 후 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신뢰가 교회로 하여금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한다. 교인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주일예배, 수요기도회를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함으로 교회의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교회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처치에게 예배와 교육, 친교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관을 구입하면서 십일조를 다문화로 위해 공간을 내 놓았다. 과거에는 다문화로 시작하여 필리핀교회를 했다. 지금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슬람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미국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선교를 위한 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교인들에게 자부심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묵는다. 이것도 교육관을 세 번째 구입하면서 십의 이조를 내놓은 공간이다. 벌써 많은 국내외선교사들이 다녀갔다. 지금도 교회 공간에서는 유치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실, 영어교실..유치학생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한남동오케스트라, 기타교실 등이 거의 매일 같이 모이고 있다. 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

B3. 목회철학

3. 지역의 자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의 교인들은 지역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마을회의의 주체가 되어 가는가?-

선교적교회의 최종목표는 지역의 자람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선교의 기틀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이 지역 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민사회 육성이다. 주민으로의 마을회의에의 참여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로 주민자치회의는 50명의 마을회의로 마을의 논제들을 나누고 해결하는 것을 복지 차원에서 나누게 하였다. 당장 내년 부토 주민세를 쓰고 마을공동체법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되고 있다. 이외에 특별히 다른 방안을 교회가 마련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특별한 재정을 들이지도 않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좋은 목회 중의 하나이다.

마을교회가 되는 것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목회비전이다. 선교는 지역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서 출발해야 하고 교회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 그 일에는 반드시 지역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삼아 지역에서 일하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중심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마을 살리기 운동에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가 들어있다.

마을교회의 가능성은 마을 공동체운동에서 찾을 수 있지만 교회와 지역운동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바다위의 배와 같은 형상으로 마을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 등을 제공하는 것에서의 한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지역 사회에서의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할 것인지 라는 적당한 선을 정하기 위해 부목사 한 사람을 지역사회 선교사로 파송했다. 한남제일교회의 마을목회에 대해 역사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씨앗기와 새싹기 성장기 순으로 소개한다..

1) 마을공동체사업의 씨앗기

- 사랑이 꽃피는 다문화가정 쉼터 만들기
-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과 행복한 한남동 만들기 사업

2) 마을공동체사업의 새싹기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이웃 만들기 사업
-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3) 마을공동체사업의 성장기

-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 학교, 마을, 교회가 상생하다

이웃들과 ‘행복’을 노래하자

마을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목회이다.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고, 이웃을 당당한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정부의 시책이나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일에 참여해보자. 마을목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목회이다.

가장 지역적인 교회에 희망이 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을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서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연구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 1) 공간을 함께 쓰라
- 2) 마을회의를 하라
- 3) 관계망을 생명망으로 변화시켜라
- 4) 마을을 촘촘게 하라

동네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이다.

- 1) 지역문제가 교회문제이다
- 2) 어쩌다 동네에서 최고

시민사회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이 아니라 동네에서 인정 받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일단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는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선교학에서 교회론에 대한 고민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다. 복음적이면서도 교회의 지경을 세상까지 확대하는 목회관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참여’가 최고의 방법이다. 참여의 결과는 1) 관계망 형성 2) 동네의 리더 3) 관계망은 계속 확장 4) 마을에서 전문성 가짐 5) 지역사회가 교회와 복음을 읽어내는 등 교회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게 된다.

지역기반이 강한 교회를 만들자

마을목회는 지역기반이 강한 교회를 만든다. 지리적인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서 속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교회이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응답하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교회이다. 교회 공간을 통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시작되는 교회이다. ‘마을교회’, ‘동네목사’, ‘마을지기’, ‘마을살이’, ‘공유공간’ 등의 말들이 한국교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C. 마을공동체운동에서 소외된 한국교회

마을공동체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없다. 독일교회와 달리, 한국의 마을공동체운동은 철저하게 세속의 시민사회의 주도로 일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소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 역할만은 제대로 해온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이며 복지국가의 정책은 또 다른 형태의 기회이기도 하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대형교회들은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목회를 했다. 교회에서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의 친교와 유대를 원하는 교인들에게 구역과 소그룹 모임과 심방 등을 통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또한 경건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라는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예배 의식을 제공한다. 아니면 카타르시스 효과를 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교인들에게, 또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원하는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호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그래서 특정 교회의 교인들은 공통의 기호와 취향을 가지며,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가족적 배경이나 출신 지역 또는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도 같거나 비슷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을이라는 근접성의 공간을 벗어나 도시 전체에서, 심지어

어 시(市)와 도(道)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교인들을 끌어 모으는 대형교회의 “매력”이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혈연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성도집단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마을이라는 지역사회가 소멸된 거대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화의 동일화 혹은 균질화 현상에 교회가 어떻게 가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도들의 성향과 기호, 배경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형교회들 각각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역으로 말해 이러한 대형교회들은 마을 단위의 작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무수히 많은 작은 교회들 혹은 미자립 교회들은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비지역화 현상을 겪는다. 재정과 목회에 대한 교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역 목회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계 현장과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자립 작은 교회들로 하여금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공동체의 주체적인 참여자로 서지 못하게 하며 곧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다른 교회로 금세 대체될 외지인 취급을 받게 하기도 한다.

이외에 교회성장주의에 근거한 목회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편향적인 내세관이나 미래적 종말론 그리고 휴머니즘에 대한 몰이해 등이 결과적으로 매일 얼굴을 맞대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 삶의 자족과 풍요, 행복을 누리려는 마을공동체운동과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마을교회로의 부활을 꿈꾸며...

이웃과의 생활관계 회복을 통해 일상적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마을공동체운동은 노동과 소비에 의해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면에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한국교회로 하여금 “마을교회”로 부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겨 준다고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운동은 일상적 삶의 생존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속적 목적을 지닌 운동이다. 따라서 마을교회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일들이 파생시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한다.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의 일상의 삶, 즉 그들의 복지와 인격적 관계망을 돌보는 마을교회의 부활은 마을공동체운동에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운동의 세속성이 초래하는 위기들이 그 공동체를 전복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세속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룩성 혹은 초월성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교회의 위기시대, 현장을 만들라!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그대로 교회의 위기라고 한다. 미래학자 최윤식박사는 급격하게 나타난 오늘 한국사회의 현상은 고령사회의 진입과 출산율 감소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결국 교회의 위기도 예상

할 수 있다고 한다. 교인들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 교인이 줄게 되고 교인들도 수입이 없으면 헌금을 못하게 됨으로 자연히 교회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않는가? 반문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지혜를 찾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사회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 현상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이다.

나는 여기에서 묻고 싶다. 현장이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사도행전을 보면..사도행전 2장 이후에..골방기도의 성령 충만은 더 이상 기록이 없다. 다만 기도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 있다. 사도행전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결코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다. 7년 흉년에 들어간 한국교회를 살릴 요셉의 지혜는 성령이 역사하는 선교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다르게 보는 힘

이종인 대표(보름왓)

트리즈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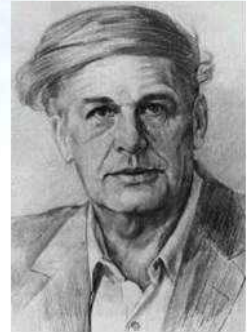
- **ТРИЗ(TRIZ, 트리즈):**

Теория(째오리아-이론)

Решения (레세니아-해결)

И изобретательских(이조브레따쩡스키흐-발명)

Задач(자다취-문제)



- 1946년부터 Genrich Saulovich Altshuller (1926~1998)와 동료들에 의해 창안된 문제해결 기법.
- 창조형 문제의 본질, 종류, 해법을 정리한 것으로 14개의 기법, 10개의 개념, 1개의 프로세스로 구성.
- 선택이나 타협을 해야하는 문제에 사용하는 기법



문제) 물 1ℓ 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초라고 하였을 경우,
그렇다면 물 100ℓ 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정답) 100초...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1-1 수직이 아닌 수평

적용 예 - 민들레 영토

- 민들레영토를 만든 지승용 대표는 종자돈 2000만원을 마련하여 카페를 하려했지만, 카페를 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랐다. 고생 끝에 간신히 찾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 공간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10평 밖에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카페를 만들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해야만 했다.



문제정의

원인분석

수단(방법)도출

모순 도출

모순 분리

번호	원인	수단(방법)
1	커피숍을 운영한다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는다
2	돈이 부족하다(-80백만원)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
3	커피, 음료를 판매한다	커피, 음료를 판매 하지않는다
4	음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
5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지 않는다
6	위험 부담이 높다	위험 부담이 높지 않게한다

1-2 수직이 아닌 수평



-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이 있다. 그런데 자전거는 평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언덕을 만나면 타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많은 발명가들이 가변 페달 자전거, 샤프트 구동 자전거 등의 상품을 만들었다. 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다리의 힘을 좀 더 많이 바꿔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좀 더 타기 쉬워진다. 그런데 아마도 아래 두 종류의 자전거를 주위에 서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보롬왓’ 이 걸어 온 길...



‘보롬왓’ 이 걸어 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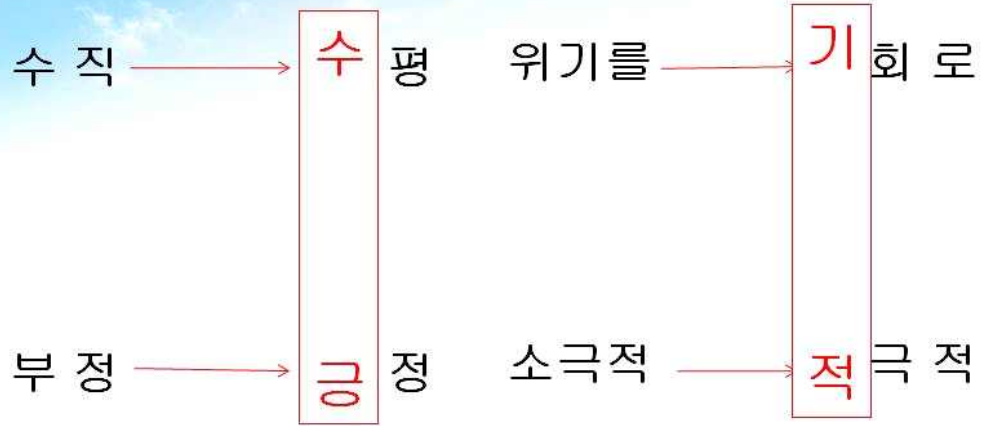
참게 양식



자연의 지혜



트리즈란?



선교적 교회 사례와 적용 1

(선교적 교회, 도심리교회의 실천 사례와 적용)

홍동완 목사(도심리교회)

- 목차 -

1. 서론 : 한 알의 감자

2. 본론 : 한 송이 잣이 되기 위해

1) 서로 알아가는 과정

- (1) 세상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 (2) 지역 섬김 예배
- (3) 교회개혁보다 앞서야 하는 것

2) 반응하는 과정

3) 서로 신뢰하는 과정

- (1) 마을 주민에 의한 교회개혁
- (2) 반장으로서 역할

4) 함께 꿈꾸는 과정

- (1) 행복한 마을 만들기
- (2) 하늘땅공동체
- (3)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 활동
- (4) 추수감사예배

3. 결론 : 들플처럼

1. 서론 : 한 알의 감자

도심리교회가 있는 도심리 마을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해 있다. 홍천읍에서 승용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2002년 3월, 이곳에 처음 올 때 보다는 도로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여러 곳 있다. 대부분 한국 농촌이 그렇듯이 우리 마을도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혼합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다. 도심리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은 미전도 지역이면서 무교회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필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질문한다. 홍천이 고향인지 아니면 무슨 연고가 있어서 오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이 질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이다. 필자는 원래 아프리카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해 준비해왔다. 국내선교단체와 호주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준비했고 선교훈련을 받았다. 강원도 홍천에 오게 된 것과 농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모든 과정은 자의(自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다.¹⁾ 선교지 선택도, 선교지에서 사역의 방법과 목표도 모두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한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

도심리교회의 개척 과정을 회고하면서 감자로 설명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감자라고 대답한다. 지금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감자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흥미로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식물학자들은 페루-볼리비아에 걸쳐 있는 안데스 산맥을 감자의 원산지로 여기고 있다. 이 지역을 점령한 스페인 사람들이 16세기 후반에 감자를 유럽으로 전파했고, 17세기말에는 아일랜드에서, 18세기말에는 유럽 대륙, 특히 독일과 영국 서부에서 중요한 농작물이 되었고, 19세기 초부터 약 40년 동안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²⁾ 이 시기에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³⁾ 귀츨라프 선교사는 복음뿐만 아니라 감자도 최초로 가지고 왔다. 귀츨라프가 감자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심었다는 기록은 김창한의 원저보(圓藪譜)에서 있다.⁴⁾ 1832년 7월에 충청도

1) J.Herbert Kane, 이재범 역,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서울:나단,1994), 228.

“사도(Apostle)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선교사(Missionary)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각각 파생된 말로서 그 근본 의미는 동일한 것-”보내심을 받은자“-이다. 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3026&cid> (2017년 12월 20일 접속),두사백과,“감자”.

3) 한국기독교사학회연구회, “중국을 통한 한국 선교의 시도” (서울:한국기독교의 역사1, 1989) 129

4) 신호철, 『귀츨라프 행전』 (서울:양화진 선교회,2017), 216. “마령서가 조선에 수입된 것은 1832

홍주만 원산도에서 그에 의해 처음으로 재배되었다.⁵⁾ 그가 여행을 위해 배안에 식량으로 가지고 다니던 감자 한 자루가 충청도에서 재배되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강원도의 복음화율은 10% 미만이지만 감자의 보급률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온 감자가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점령했지만 복음은 오히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들이 왜 감자를 좋아할까 살펴보았다. 첫째, 매우 친근하게 생겼다. 땅 속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감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 꼭 한 가족의 얼굴과도 같다. 둘째, 수확이 많다. 감자는 20배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셋째, 쓰임새가 많다. 구워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간혹 썰는다 해도 잘 거르면 감자가루가 되고 그것으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넷째, 감자는 재배 방법이 쉬워서 일자무식 촌로(村老)도 할 수 있다. 감자를 사등분 한 후에 땅에 적당히 심어서 90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 다섯째, 보관이 오래 간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의 예화를 강원도 버전으로 하면 “한 알의 감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감자를 맺느니라.” 할 수 있다.(요12:24) 필자도 이곳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한 알의 감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다.

남미 안데스 산에서 온 감자를 선교사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감자는 식물이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누군가에 의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다가 귀츨라프 선교사의 손에 의해 이 나라에 전파된 것이다. 보내진 존재이다. 비록 식물이긴 해도 감자가 남미 안데스 산에서 멀리 있는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온 것이라고 여긴다면 감자의 영향력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1cm 도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었고, 절대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감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다. 필자의 사역도 감자와 같이 절대타자인 하나님에 의해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심리에서 사역을 이루는데 다른 또 하나의 타자가 있는데 바로 지역 주민이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주도하려고 한다.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자기 주도적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심리에서 사역은 현지 주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이 주도적인 반면 필자는 수동적이었다.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개척의 주도가 필자가 아니라 바로 현지 주민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지 주도적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소리를 듣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성경에서

년 유명한 귀츨라프가 이식한 것이 최초이다.”

5) 위의 책, 339, 이것에 대해 기독교사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인가 아니면 원산도인가가 논쟁점이다. 여기에서는 충청도 홍주만이라는 사실 정도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⁶⁾ (출17:4, 사3:9, 렘 33:3, 눅18:7) 땅에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소리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영혼의 소리가 간절하면 할수록 솔직해진다. 도심리교회 개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었다. 필자는 잘 몰랐지만 그 어르신이 마을에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속에 있는 영혼의 소리였다. 당시에 우리 마을은 여러 패로 나누어져있었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웃도 있었다. 심지어는 친척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 그 어르신은 필자의 삶을 지켜본 후에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화목한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어르신의 요청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영혼의 외침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꿈을 만들어 내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기적은 분명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더욱 정확히는 사람 영혼 속에 있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전하기를 힘썼지만 유럽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게도니아인의 영혼의 외침을 통해 결정 되었다.(행16:6-10)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혼의 요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막10:47) 이것은 도심리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역의 중심적 흐름이다. 행사는 주민들 안에 있는 외침을 통해 대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마을 사역이 되었다.

도심리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얻게 된 실천의 모습과 적용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현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수동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인격적 관계의 만남을 통해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역이 되었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했던 일은 사람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한 것이었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다.⁷⁾ 도심리교회의 사역은 목회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았다는 것도 타자에 의한 결정이고, 지역 주민들 주도적 사역도 타자에 의한 것이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에 의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사역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6)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2:23)

7) 마9:36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2. 본론 : 한 송이 잣이 되기 위해

도심리교회 주변 산에는 40년 이상 된 잣나무들이 즐비해 있다. 잣나무의 크기에 비해 열매는 매우 적게 열린다. 높이가 약 30미터 되는 나무 한가운데 잣 열매가 열린다. 봄에 노란 꽃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생명의 약동을 보게 된다. 여름이 지나고 추석을 즈음해서 잣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어떤 잣나무는 아직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엄지 발가락만한 잣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해 가을에 채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잣의 열매 맺는 주기는 2년이기 때문이다.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겨울의 무거운 눈을 가지로 두 번 지탱해야하고 다람쥐, 까치와 같은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해야 하고, 찬 서리에 모든 곡식들이 사라질 때도 견뎌내야 하고, 봄을 알리는 빠꾸기 소리도 두 번 들어야 한다. 잣 열매를 얻기 위해 물, 태양, 흙, 공기, 기름, 영양분,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대부분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다.⁹⁾ 그 안에 아홉 가지의 구성요소가 있다. 아홉 가지 구성요소가 하나의 열매로 표현된 것은 조화와 통일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¹⁰⁾ 도심리 마을에서 필자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부분 주님의 사역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성의 결여이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헛되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 지속성은 어떤 형태이든 열매를 맺게 한다. 잣에게 있어서 사계절은 각각의 다른 고난이고 과정이다. 이것을 잘 견디어 나갈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역현장이 농촌이든 도시이든 국내이든 해외이든 어렵지 않은 곳은 없다. 어렵지 않은 시기 또한 없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요16:33)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늑대가 양을 물어뜯어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마10:16) 한 송이 잣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도심리에서의 사역을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과 조화가 있었다.

도심리교회의 사역의 배경이 된 도심리 마을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행정구역 안에 있다.¹¹⁾ 원래 우리 마을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속해 있다가 1980년에 화촌면 구성포리에 편입되었다. 편입되면서 성동리 사람들과 구성포리

8) [http://terms.naver.com/entry.nhn\(2018.1.4.접속\)](http://terms.naver.com/entry.nhn(2018.1.4.접속)), 약초도감, “잣나무”.

9)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καρπος)” 헬: 주격 단수 남성 명사로 되어 있다.

10) Anthony A. Hoekema, 류호준 역, Saved by Grace, 『개혁주의 구원론』(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99), 75.

11) <http://terms.naver.com/entry.nhn> (2017년 12월 20 접속) (민족문화대백과; 홍천군).

사람들 어느 쪽에서도 자신들의 마을공동체로 인정해주질 않아서 도심리 주민들은 소속감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것이 후에 우리 마을이 하나로 단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화전민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1968년부터 1976년까지 화전민이주정책으로 화전민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주로 잣나무와 낙엽송을 심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는 잣나무가 많이 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열 두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진 작은 산골 마을이다. 대부분 마을이 큰 도로를 끼고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 마을은 도로의 막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꼭 어머니의 품과 같이 모양을 하고 있다. 열 두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가운데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각 골짜기 마다 시냇물을 따라 형성된 마을은 넓게 퍼져 있다. 마을의 길이는 약 4,6km이기에 이웃집을 한번 가려면 큰 맘 먹고 나서야 한다. 골짜기 마다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고 들풀과 같은 순박한 농민들이 살고 있다. 막다른 길로 형성된 마을의 지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타적 심리를 갖게 했다. 외부인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이 더욱 심했다. 반대로 이러한 지형적 배경이 후에 서로 단합된 마음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도심리라는 마을 이름도 처음에는 다양하게 불렸다. 어떤 사람은 도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십리라고 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이름인지 마을 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4년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되었는데 당시에 반장일을 보던 필자에게 의뢰가 들어왔다. 반상회를 열어 우리 마을 이름을 도심리(道心里)로 하기로 했다. 이름의 뜻은 '마음의 길이 있는 마을'이다. 마을 분들도 모두 좋아했다. 지금 우리 마을은 30가구 42명의 주민들이 있다. 축산 농가 두 가구이고 7가구만이 농사에 종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귀촌자들은 텃밭을 가꾸는 정도이다. 농사는 고추, 감자, 배추, 들깨, 논농사, 옥수수 등이다. 필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던 2002년만 하더라도 토박이가 70% 이주자가 30% 였는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귀촌자가 80%, 토박이가 20%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귀촌자들은 단순히 농촌에 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¹²⁾ 농사가 주 직업인 귀농자는 거의 없고 귀촌자가 대부분이다. 우리 마을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다. 특별히 귀촌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은 다양하다. 화가, PD, 전직 경찰, 건축가, 미국이민자, 회사원, 조경업자, 사회복지사, 교사, 엔지니어 등이다. 이것이 현 우리 마을과 농촌의 현실이다. 농촌을 단순히 농사만 짓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모든 면에서 오해하기 쉽다.

필자가 민들레 흩씨처럼 바람에 날려 이 마을에 흘러 들어온 때는 2002년 3월 봄이었다. 이 마을에 들어간 이유는 무교회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원 혹은 장애

12) <http://www.edunet.net/nedu> (2017년 12월 28일 접속) 에듀넷 학생백과. "귀촌자"

자 시설을 세우려는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이 필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마을 반상회를 열어 서 동네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 장애자를 수용 하지 말 것, 기도원을 세우지 말 것,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등이었다. 마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마을 반장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필자에게 한 가지 요구를 더했다. 그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오.”라는 것이었다. 이 단호한 요구를 듣고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지혜의 말을 주셨다. 필자는 분명한 소리로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혼잣말로 말했다. “내가 말로는 안한다.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겠다.”이것은 지금까지 필자의 선교전략이 되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말씀하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결론을 맺었다.¹³⁾ 예수가 공생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셨기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회적 행동이지만 이것의 의미, 결과, 효력, 이유 등을 기록한다면 끝도 없이 기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언어로 요약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사역의 타자인 지역 주민들, 여기에 역동적이고 능동이신 주님의 사역이 잣 열매가 2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심리교회 사역을 네 가지 과정을 통해 논하려고 한다. 첫째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 둘째는 반응하는 과정, 셋째는 신뢰하는 과정, 넷째는 함께 꿈꾸는 과정이다.

1) 서로 알아가는 과정

(1) 세상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처음 도심리 마을에 왔을 때 경험했던 복음 전파의 금지 요구는 필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복음전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요구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죄에서 떠나라고 외친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우리들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다. 세상의 소리에는 종교적 위선이 배제된 원초적인 주님의 음성과 제삼자가 보는 눈이 있다. 주님은 세상을 통해 교회에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교회는 스스로 정확할 능력

13) 요21: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때 주님은 세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 그가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다.¹⁴⁾ 하나님은 느브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단2:28) 엄청난 세계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 보이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돌들이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가는 비, 단 비로 말씀한다.¹⁵⁾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가 된다. 종교적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혀있던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종교적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교회재정불투명사용”이라고 했다.¹⁶⁾ 세상은 교회가 맘모니즘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계하고 있음에도 교회가 돈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딤후6:10)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도심리교회 개척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변하라고 외치기 전에 세상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변해야하고 이것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지역섬김예배

농촌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미전도 지역인 우리 마을에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필자의 이곳에서의 삶은 교회 개척보다는 선교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했다. 주일 날 오전에는 선교공동체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각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것을 ‘지역 섬김 예배’라고 불렀다. 이것은 나중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했던 사역을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둘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이고, 셋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사역이다. 넷째는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다. 이런 예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마12:9~13) 안식일에 열여덟 해

14)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창41:25)

15) 시19:1, 눅19:40, 신32:2

16) <http://cemk.org/2008/bbs/board.2017년> 12월 20일 접속)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2017.3.3.) 재정불투명 사용 26%”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퍼지 못한 한 여자를 고치셨다.(눅 13:10~16)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행동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중히 여겨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이것은 예수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일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봄에는 감자와 고추와 같은 농작물을 심어주고, 여름에는 풀을 뽑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 도와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겨울 땀감하기, 모타 펌프 고쳐주고, TV도 고쳐드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음료수 사들고 가서 병문안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축하송을 부르고 준비한 선물도 나누었다. 이러면서도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위에 열거한 선행은 지금 교회들이 잘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선행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선행일지라도 부패한 결과는 낳게 된다. 사람들은 의도가 들어간 교회의 선행과 봉사를 다 알고 있다. 흑심(Black heart)을 품지 않은 사랑의 행위가 감동을 일으킨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과 봉사가 감동을 준다.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관점, 인류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마5:45, 시145:9, 딤후2:4)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적인 생각은 의도를 갖게 만들고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영육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것은 거름더미 위에 화려한 양탄자를 까는 것과 같다.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역겨운 냄새가 그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3) 교회개혁보다 앞서야 하는 것

예수는 이 땅의 공생애 기간 동안 건물로서의 교회를 개혁하지 않았다. 우리는 교회개혁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교사로 준비하는 사람이나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교회개혁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예수는 공생애 기간 중에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개혁하지 않았다. 교회개혁의 방법론, 성장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만약 예수께서 교회를 개혁했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을 것이고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 것이다. 어떤 장소에 있는 건물로서 교회를 갖게 된다면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선행, 기적, 말씀선포는 교회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적 삶의 표현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창조세계에 충만한 우주적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요2:19)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46년 동안 짓고 있던 성전이였다. 예수는 건물의 성전은 험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인 예수로 세우라고 했다.

도심리교회의 개척 과정을 통해 볼 때 교회개척 이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항상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예수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생명경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흑심이다.** 로잔 언약 10장에서 표명함 같이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자신의 개인적 진실함만을 빼고는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기를 힘써야 한다.¹⁷⁾ 예수의 지상대명령도 교회개척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말씀하셨다.¹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열매가 바로 교회이다. 어떤 의도와 대가가 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삶이 있다면 교회 개척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과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늘 하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촌에는 일거리들이 많이 있다. 그것 자체가 행사요 사업이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 따라 할 일들이 생기고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루셨다. 훗날 우리가 바울을 평가해서 바울신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행한 것 외에는 없었다. 교회개척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나를 따라 오너라”(마 4:19) 말씀 예수의 교훈, 예수의 방법, 예수의 스타일이 아닌 바로 예수 자체를 따르라는 명령이다.

2) 반응하는 과정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이다. 처음에 우리 마을에 왔을 때 매우 배타적이었던 주민들이 필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완고하고 배타적인 주민들이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관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농촌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자기편을 만들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이다.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 안에 있는 수많은 삶의 희로애락을 보았다. 만남과 대화만으로

17) Ralph D.Winter, Stever C. Hawthorn 공저, 정옥배 역, Mission Perspectives,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예수전도단, 2001), 355,

18) 마28:19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거들어 주면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면 금방 친한 관계가 된다. 대부분 농촌의 모습은 삼삼오오 집단을 형성하고 서로 견제하고 심지어는 이웃 간에 평생 원수로 등지고 살아가기도 한다. 서로 헐뜯고 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내적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한다. 여기에 화해의 매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양쪽 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예수의 사역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었고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¹⁹⁾

마을 주민들이 필자에 대한 처음의 선입관과 마음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마을에 들어 온지 삼 년째 되던 해에 정월대보름 거리제사에 목사인 필자를 초청했고 기도를 부탁해왔다. 농촌에서 노제(路祭)는 전통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을제사이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다. 필자를 그들의 거리제사에 초청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적 생각이었다. 물론 마을 주민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죄인인 인간의 가장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의식이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두려워한다. 이 사상을 기독교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 모든 종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종교는 각자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종교이다. 종교를 서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기 전에 세계 종교 안에서 기독교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증명해야 한다. 세계 모든 종교는 동일 선상에서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정당하고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배타성이다.²⁰⁾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시합에 뛰어들어야 한다. 거리제사 기도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허락하셨다.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이들은 복음전파를 금지했는데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기도를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었다. 당시 했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담았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 고후5:18

20) <http://cemk.org/2008/bbs/board.>(2017년 12월 20일 접속)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2017.3.3.) 타종교에 대한 태도 21.9%”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농사가 풍년 되게 하소서.
 고추에 탄저병이 없게 하시고 풍년들게 하소서.
 옥수수 농사가 잘되게 하소서.
 어르신들이 올해 건강하게 하소서.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성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마을에 평안과 행복을 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 제사는 농촌마을에서 실시하는 전통적인 종교행사 중에 하나다. 이것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정죄한다면 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전통문화를 존중해주고
 종교다원주의적 생각을 인정할 때 복음은 매우 천천히 그들 영혼가운데 스며들게
 된다. 종교다원주의를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통로로 봐야 한다.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생기면서 정월대보름
 거리제사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 마을 반장이면서 목사인 필자가 거리 제사를 적
 극적으로 반대했다면 더 큰 갈등이 생기고 교회와 마을은 분리되었을 것이다. 그
 러나 말없는 믿음의 영향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정월대보름날 거리제
 사 대신에 정월대보름 마을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다. 단오제도 단오축제
 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는
 교회의 큰 과제이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필자에
 대해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응해 왔다. 예수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왔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 설명해 준다. 한 마을 주민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목사님, 너무 몰아 붙치
 지 마세요. 받은 넘어갔으니깐요.”

3) 서로 신뢰하는 과정

(1) 마을 주민에 의한 교회개혁

2008년 7월, 뒷골에 사는 이 씨 아저씨의 칠순 잔치가 있다고 해서 갔다. 아저씨는 이미 약주를 많이 드셔서 말할 때 혀가 완전히 꼬부라진 발음을 했다. 아저씨는 “목사님, 우리 동네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랐고 기뻐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런데 아저씨가 워낙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한 말이기엔 진위를 알 수가 없었기에 다음 날 댁으로 찾아갔다. “아저씨, 어제 제게 한 말씀 기억하세요?” 물었더니 아저씨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심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펜션 빌려서 도심리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도심리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분이 도심리교회 첫 세례자가 되었다. 이 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다. 그 동안 이 분에게 여호와증인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꽤나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달에 한번 흥천읍에서 와서 일을 돕는 것을 보았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필자는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이 분을 섬겼다. 결국 이 분은 저에게 감동을 받고 필자의 종교인 기독교를 선택했다. 지금 우리의 복음전파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타종교와의 문제, 이단과의 문제, 그 동안 교회가 해왔던 구제와 복지 분야가 정부기관으로 많이 이전됨으로 생긴 교회 역할의 축소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진실하게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논리싸움도 아니고 교리싸움도 아닌 사랑싸움이다.

(2) 반장으로서는 역할

마을 주민들이 필자는 신뢰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마을에 온지 팔 년 만에 생겼다. 이 마을에 왔을 때 주민들은 큰 돌과 통나무로 길을 가로 막고 저의 출입을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마을 대동회 때 만장일치로 저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필자가 반장이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필자는 자신들의 일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필자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한 열매였다. 얼마 전에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말했다. “반장님은 언제까지 우리 마을에 살 거예요?” “저는 여기에 뼈를 묻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을 반장하세요.”라고 말했다. 반장은 지역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갖는 중요한 도구이다.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에서 마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반장은 주민과 관계를 맺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효과적이다. 실질적 섬김 사역을 할 수 있다.

마을 일을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봄에 종자를 신청하는 일, 가축퇴비를 신청하는 일, 소금을 공급하는 일, 오가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반장을 보고 있다. 거리낌 없이 허물없이 도와줄 수 있다. 귀촌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농촌에는 노인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마을자체의 존립위기에 놓여있다.²¹⁾ 우리 마을에는 특별히 과부들이 많다. 과부들은 자존심도 있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 75세가 넘는 분들을 특별 관심 대상으로 삼아 가정을 자주 방문하여 살핀다. 반장이 그들에게 친근히 하기 위해 과부 집에 드나든다고 어느 누구 하나 홍보지 않는다.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전략이다. 교회의 울타리는 넘어서 지역 사회 속에 소금처럼 녹아져서 골고루 스며들어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 예수의 비유가 빛 다음 소금이 아니라 소금 다음 빛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²²⁾

4) 함께 꿈꾸는 과정

(1)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다. 행복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크게 다섯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자연환경분과에서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둘째, 문화예술분과에서 문화 예술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셋째, 주민화합분과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인정이 넘치도록 만들고, 넷째, 농가소득분과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 다섯째, 정보통신분과에서 마을 네트워크, 홈페이지 관리이다. 이것은 마을에 전에 없던 조직이다. 조직에는 담당자가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다. 추진위원회 8명 중에 5명이 성도이지만 꼭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수한 섬김이다. 어떤 의도와 전제도 없다. 특별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계획은 마을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말하고 이것은 또한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와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만든다.

21) 소멸 위기에 빠진 '나의 살던 고향', (시사인, 2018.1.9.), 20-28.

22) 마5:13

(2) 하늘땅공동체

교회성도들과 함께 산나물을 재배하는 산나물공동체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신앙공동체이면서 곧 생활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행2:42~47) 이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마다 때마다 부적을 붙여놓고 잠잘 때 무섭다고 칼을 베개 밑에 두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던 주민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자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있다. 그 사람보다 앞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다. 일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미신적 행위가 다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목회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늘땅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노동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제와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연농법으로 산나물 곰취를 재배하고 있다.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무기경, 무육심을 원칙으로 한다. 화학약품을 통해서 짓는 농사의 큰 폐단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농촌에 있으면서 가슴 아픈 것은 농부들이 농약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것과 농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은 아무 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농약에는 살충제, 살균제, 살비제, 제초제, 그리고 쥐를 죽이는 살서제가 있다. 모두 죽이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²³⁾

하늘땅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하는 자연농사법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통해 단순히 곰취를 팔아서 돈을 벌해보자는 생각을 넘어선 것이고 농산물을 통해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늘땅공동체를 마을 주민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 활동

농경사회에서 파종을 하고 모를 낸 후 약간의 휴식이 준비되는 시점이 단오절이다. 이날 하루 마음껏 놀이를 즐긴다. 지금은 농경사회의 변화가 있다. 농기계, 농약, 비닐 하우스 재배로 절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이 날은 서로 한 마음 되어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그네뛰기, 취떡만들기,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도 갖지만 외부에서 교회 봉사팀을 초청해서 시원한 음료수와 이미용, 한방진료 등을 봉사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정월대보름에는 농촌에서는 거리제사를 지낸다. 이 날은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날이

23) [http://terms.naver.com/entry.nhn\(2018.1.4](http://terms.naver.com/entry.nhn(2018.1.4) 접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농약”.

다. 이것을 우리 마을에서는 축제인 율놀이대회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미신적 전통문화를 인간중심적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마을여행을 일 년에 한 두 차례 실시한다. 여행은 다용도이다. 첫째는 선진지 견학이다. 전국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마을 만든 곳을 방문하여 학습의 시간과 도전을 시간을 갖는다. 둘째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을 도로 양 옆으로 개복숭아 나무와 돌배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고 열매는 수확해서 마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마을 시냇물 청소하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격려한다.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성도들이 실행위원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마을의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4) 추수감사예배

추수감사예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드린다. 추수감사예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감사라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예배순서에 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 예배를 초청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헌금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수한 농산물을 한 두 개씩 가지고 오게 한다. 그러면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배추, 무, 쌀, 고추 등 자기가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강대상 앞에 있는 진열대에 놓게 한다. 이때 주민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기록해 놓는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는 고향의 봄, 아리랑, 우리의 소원 통일, 등과 같은 곡에 가사만 바꿔서 부른다. 친숙한 곡조이기에 한편으로는 흥미롭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다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으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 건강을 주셔서 감사 풍성한 곡식도 감사, 감사를 드리세 따스한 이웃도 감사, 소중한 내 나라 감사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감사를 드리세” 성서교독은 시편 138편 말씀을 농촌에 맞게 바꿨습니다. 성서교독은 마을주민들이 참여케 한다.

(심석임)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같이)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최철호)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같이)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김병렬) 고추와 들깨와 참깨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같이)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올해 추수감사예배 시간에는 감사 시 낭독도 마을 주민에게 요청했다. 작년에 면민의 날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차지한 주민이 “사랑은 언제나”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교회성도 중에 갓 세례를 받은 분이 색소폰 연주와 간증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평소에 함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순서를 잘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봉헌시간에는 마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한 씨 아저씨가 오늘 배추 두 포기 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 해도 농사 잘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무릎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 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다. 설교도 농촌에서 농민들의 정서에 맞는 소재인 콩, 옥수수, 팥, 등의 씨앗들을 보여주며 설교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마을 잔치를 베풀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교회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두 개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시도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상황과 문화에 동일화한 최고의 모범이다.²⁴⁾

3.결론 : 들풀처럼

도심리마을은 열 두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졌는데 골짜기마다 들풀 같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에게 들풀 혹은 들꽃이름을 붙여주었다.²⁵⁾ 각각의 주민들 속에서 있는 특성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들풀들이 모여서 조화로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고은 시인의 만인보(萬人譜)에서 사람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표현했다.²⁶⁾ 각기 다른

24) Ralph D.Winter, Stever C. Hawthorn 공저, 정옥배 역, Mission Perspectives,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예수전도단, 2001), 351-355.

25) 홍동완, 『들풀 위에 깃든 사랑』 (서울:예영,2013), 149~151.

사람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농(農)자를 살펴보면, 농(農)자는 곡(曲)과 진(辰)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래와 별이 합쳐서 된 말이다. 이 말의 뜻을 별들의 합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별들의 합창과 함께 이루어진다.²⁷⁾ 복(福)자를 보면, 하나님, 농부, 밭이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조화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름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고유들이 모여 조화를 이룬 것이다.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빛과 어둠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태양이 서산에 막 넘어갔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노을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빛이라고 해야 할까 어둠이라고 해야 할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를 고심해야 한다.

도심리교회의 개척과정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보는 시도였다. 두 공동체는 실상은 하나의 공동체이다. 순위는 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통전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지금 도심리마을 주민들은 30가구 40여 명이다. 가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심리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고 질문한다. 그럴 때 마다 지체하지 않고 40명이라고 대답한다.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도 도심리 마을 식구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도한다. 이러한 의식은 사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어느 사회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에 늘 다사다난하다. 이런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역의 큰 힘이다. 아무리 못되게 구는 사람도 언젠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도심리교회는 교회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마을의 행사가 곧 교회의 행사이고 교회의 행사가 곧 마을의 행사로 여기려고 한다. 우리 마을에는 작지만 여러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범위가 큰 조직은 행복한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이고, 타 마을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개발위원회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어르신회가 있고, 여자 회원들로 이루어진 부녀회가 있다. 각 조직의 구성원들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운영해 간다. 산나물을 재배와 지역 농산물 판매는 교회와 마을이 함께하는 하늘땅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을목회, 심지어 마을 만들기가 선교의 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마을 만들기하면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에 있었던 새마을운동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운동의 비판적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된 하향식 운동

26) 고은, 『만인보』 (서울:창비,1986), 11. “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다 세계다”

27) 정경식, 안철환, 『21세기 희망은 농(農)에 있다』 (서울:두레,2000), 56.

28)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장로회신학교출판부,2016), 246.

이 아니라 국가지배전략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²⁹⁾ 이것이 최근 들어 마을 만들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다. 이것의 가장 큰 의도는 마을 공동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실패한 사례들의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 주도적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큰 영향력은 재정지원이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도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해서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전문업체가 손을 놓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 교회가 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마을 만들기의 주체가 교회가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의도일지라도 지역주민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종교적일 수 있다. 교회가 갖는 관점과 특별히 지역 교회 목회자가 갖는 관점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지구촌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거의 인간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되셨다.³⁰⁾ 교회 역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주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 어느 특정장소에 건물로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은 것을 숙고해야 한다. 예수는 유대인이나 갈릴리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로 여겼다. 가난한자, 부요한 자, 병든 자, 모두 하나로 봤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다. 목회자가 중심이 아닌, 교회가 중심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된 마을 목회와 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9)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푸른역사,2009), 336.

30) 니케아 신조

선교적 교회 사례와 적용 2

(교회에 미래가 있다)

안준호 목사(참포도나무교회)



• 장항동 시절 / 개척 2004년 6월-2007년



참포도나무 교회는 참명안,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모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공동체입니다.



• 장항동 시절 전도 / 2004년 6월-2007년



• 숲과 낙엽이 들려준 이야기



• 어린이북카페 숲을걷다 / 전경



• 어린이북카페 숲을걷다 / 프로그램



• 어린이북카페 숲을걷다 / 프로그램



• '1시간학교'는 노는 곳?



• 1시간학교/수업장면



• 1시간학교 / 먹는 학교?



• 1시간학교 / 노는 학교 ?



• 1시간학교 / 특별활동



• 1시간학교 / 삶을 배우는 학교



• 1시간학교 / 학과과목 그룹 및 개인교습, 멘토링



• 부암동 작은 카페, Demittasse



예배당을 떠나서 '카페'를 찾아서
 순례를 떠나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카페'는 어떤 장소인가?
 그 곳에서 그들의 기쁨과 아픔
 사랑과 나눔
 희망과 공포를 보다.



- 커피마을 / 공사장면(2009년 10월-2010년 4월)



목수
를
꿈
꾼
목사



- 커피마을 / Coffee House for Village



- 커피마을 / The Little Things



- 커피마을 / The Little Things



• 커피마을 / Meet, Some one



• 커피마을 / Propose Café !



• 커피마을 / Propose Café !



• 마을콘서트 / since 2010.5



• 마을콘서트 / since 2010.5



• 마을콘서트 / since 2010.5



• 마을콘서트 / since 2010.5



• 참포도나무교회 / 동네교회 동네목사



• 커피마을 / 바리스타로 살기



• 참포도나무교회 / 동네교회 동네목사



• 참포도나무교회 / 동네교회 동네목사



• 참포도나무교회 / 동네교회 동네목사



• 가나예배당 for Les Miserables !



• 가나예배당 for Les Miserables !



• 가나예배당 for Les Miserables !



• 가나예배당 for Les Miserables !



• 가나예배당 for Les Miserables !



• 안준호 목사 가족 2012-2014



• 참포도나무교회 2014



• 도시청소년 숲을걷다 2014 북촌마을

• 카페목회? 1. 들어주는 목회



어느 날 부터
찾아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손님들
함께 흘린 눈물,
웃음꽃 피우던 수다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좋은 친구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다.



• 카페목회? 2.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목회



커피마을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동호회분들,
카바레에서 기타를 쳤지만 제즈기타리스트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리에서 연주하시는 어르신,
아무 직장도 없이 집에서 조카를 돌보며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두 번 커피마을을
지키는 39살 청년
그리고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동네의사선생님
그 외에도 많은 레미제라블들....



• 카페목회? 3. 마을 안의 성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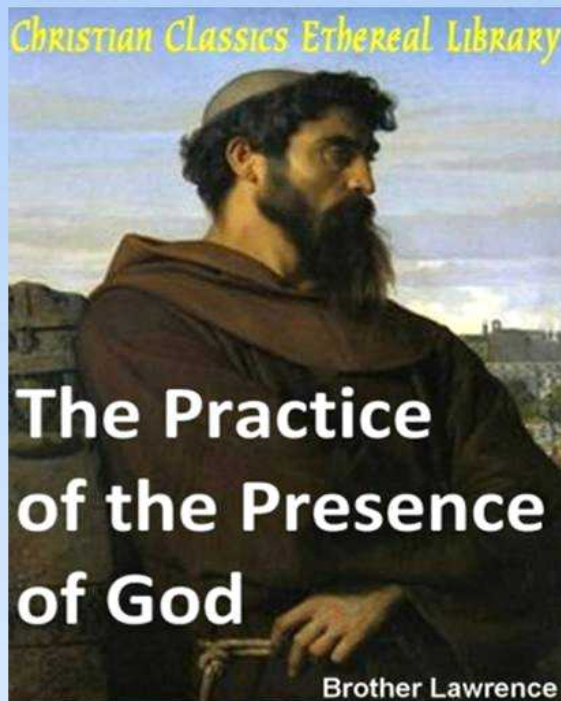


스타벅스가 창조한 것은 '제3의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회사만을 반복하던 사람들에게 '카페'라는 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과 회사, 학교가 일상적인 공간이라면, 카페와 교회와 같은 공간은 비일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고요,
어떤 위협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엄마의 자궁과도 같은 따뜻함
마을 안의 카페와 교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 카페목회? 4. 로렌스 수사를 꿈꾸며



"일상 업무나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책을 읽는 동안에도,
아무리 그 일이 영적인 목적을 띠고 있을지라도,
어떤 경건 행위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잠깐 동안이라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비록 순간적으로만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중에서



한계를 만나다

1. '작은교회'에 대한 두려움

2. 헌신자를 만나기 힘들다

3. 목사? 사찰집사? 선생? 남편? 아들? 아빠 /역할갈등

4. 교회와 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악화

5. '기도'와 '개인영성' 그리고 '심'의 부족

6. 공간의 한계/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Sacred Vacant

7.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팬목향으로 가다 / 다큐3일 KBS



단원고 생존자 1차 멘토링 / 커피바리스타반 (14명)



단원고 생존자 2차 멘토링 / 한달간 (25명)



단원고 생존자 3차 멘토링 / 7월 2주간 (27명)



세월호 희생자 자매 남매 멘토링 (25명)



단원고 2학년 여름캠프 / 해변테크노 카페



방화중학교 방과후수업 / 커피바리스타반 25명



달려라 커피, 지금 당신께 달려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커피나눔과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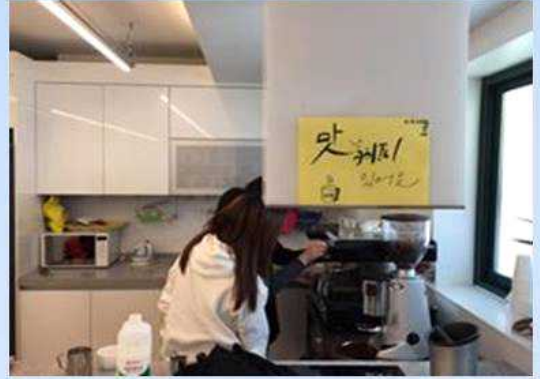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한 커피나눔(진도실내체육관)



달려라 커피, 사회적 심방 / 참여와 연대



416기억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



청소년 목공 놀이 마을공작소



감신목공소 /선교와 목공예술, 노동 영성 교육



청소년 목공 놀이 마을공작소 / 청년들의 공방



일상 속의 예수살기 / 참포도나무교회 2016



일상 속의 예수살기 / 참포도나무교회 2016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삼애목공교실 2017

YONSEI UNIVERSITY SAMAE CHURCH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고종실 차장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내에 위치한 삼애교회는 독립 운동가 고 배임수 목사님이 평생토록 추구한 삼애정신(나눔, 사랑, 노동) 서양 문화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연세대학교 부속 교회로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삼애 목공 교실
D.I.Y 기모집

삼애정신 중 "노동 사랑" 구현을 위해 <삼애 목공 교실>을 개설 하고 지역 주민과 교우를 대상으로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 간 9월 9일(토)-12월 2일(토) 12주
일 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강 사 안준호 목사
(마음공작소 대표,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와 목공' 강의)
장 소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내 삼애교회 목공실
수강료 30만원(재료비 포함)
인 원 15명 선착순
문의 031-975-1885 <http://samae.yonsei.ac.kr>

수업 일정

제 1강 (9월 9일) 판재지르기 및 톱질 / 대패질 / 뿔대기	제 7강 (10월 29일) 도색 및 마감 / 칠하고 마감하기
제 2강 (9월 16일) 직각지르기 및 톱질 / 각도절단기 / 용접기	제 8강 (11월 4일) 자기만의 의자 만들기 1
제 3강 (9월 23일) 직각이썰기 만들기 / 전통공구 사용	제 9강 (11월 11일) 자기만의 의자 만들기 2
제 4강 (9월 30일) 공구보관장 만들기 / 전통공구 의미	제 10강 (11월 18일) 자기만의 의자 만들기 3
제 5강 (10월 7일) 공구보관장 만들기 / 트러머	제 11강 (11월 25일) 자기만의 의자 만들기 4
제 6강 (10월 14일) 전통도끼 사용하여 조립하기 / 전통도끼와 나무못	제 12강 (12월 2일) 합류 / 전시회 / 종강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노작교육', '선교와 목공' / 2017



'아이들과 걸어서 부산까지' / 2017



길목공소 / 2017 , 길에서 만나서 목공하는 친구들



달려라커피 커피트럭/ 2018/학원홍보커피트럭



달려라커피 커피트럭/ 2018/파인텍개신교기도회



달려라커피 커피트럭/ 2018/일영유원지 커피트럭



달려라커피 커피트럭/ 2018/안산커피클럽



청소년 서핑캠프 / 2018



'길위의 목회' 패러다임

1. 누가(Who)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2. 언제(When) / 동시대에(Contemporary)
3. 어디서(Where) / 삶의 한복판에서
(과부의 주방과 우물, 길, 여행)
4. 무엇을 / 부활의 능력과 치유를
5. 어떻게 / 설교 = 대화
6. 왜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리막 길에 만난 예수 /



/인생의 내리막 길을 함께 걸으며 그들과 담소를 나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그 경험이 기
독교의 역사의 시작이 되다. (눅 24:13-31)
/ 목회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하는 여행 길 이야기.

“교회에 미래가 있다” (한스 쾨링)

1.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
2. 세계에 대한 봉사와 의무
3. 교회에 미래가 있다

LOVE

INDEPENDENT

LIFE

FAMILY

ENJOY

마을이란? / 골목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



선교적교회를 위한 10가지 제안

1. 빗자루를 들고 마을 청소 먼저 시작하라.
2. 가르치지 말고 먼저 살아내자.
3. 나는 이 마을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다.
4.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목양지가 아니라, 선교지이다.
5. 삶의 진정성이 없이 전도는 없다.

선교적교회를 위한 10가지 제안

6. 자립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다.
7. 일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8. 사람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9.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나야 한다.
10. 교리교육이 아니라, 놀이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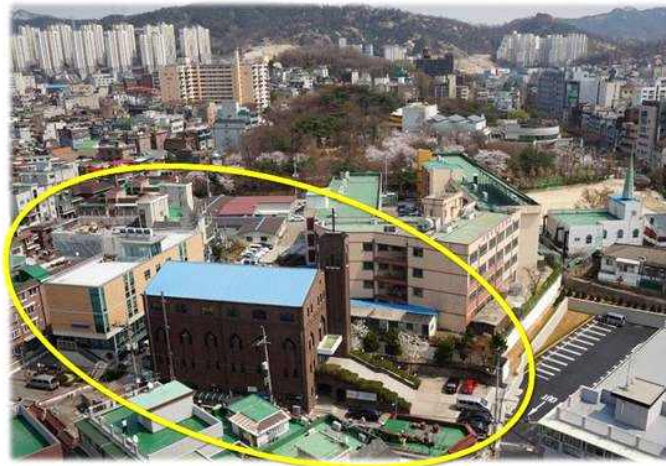


선교적 교회 사례와 적용 3

(마을의 교회, 교회의 마을)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마을의 교회, 교회의 마을



성암교회 조주희목사

출발을 위한 준비

교회론

목회자 자신의 신학과 신학
교회공동체의 신앙과 신학

기반 이해

교회 환경: 인력, 재정, 시설 등의 자원
지역 환경: 일반적 상황, 복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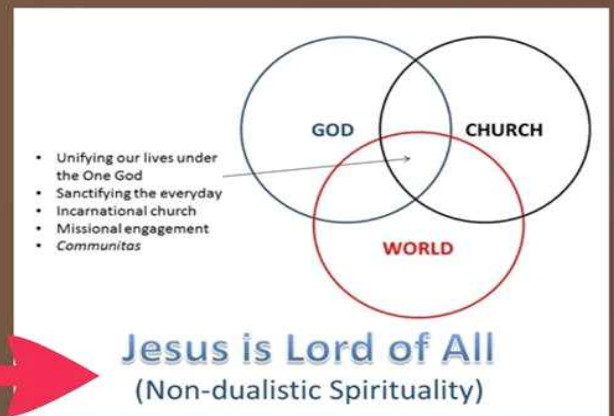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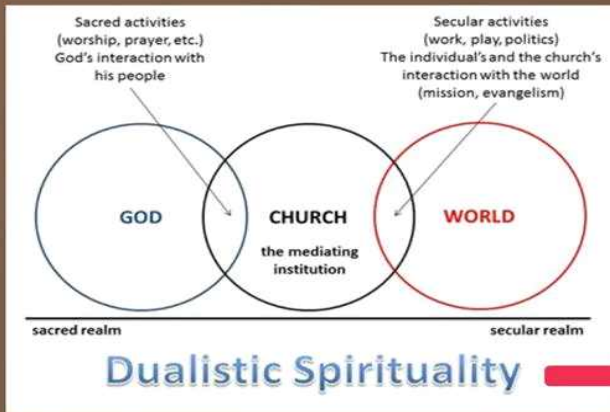


지역에 대한 교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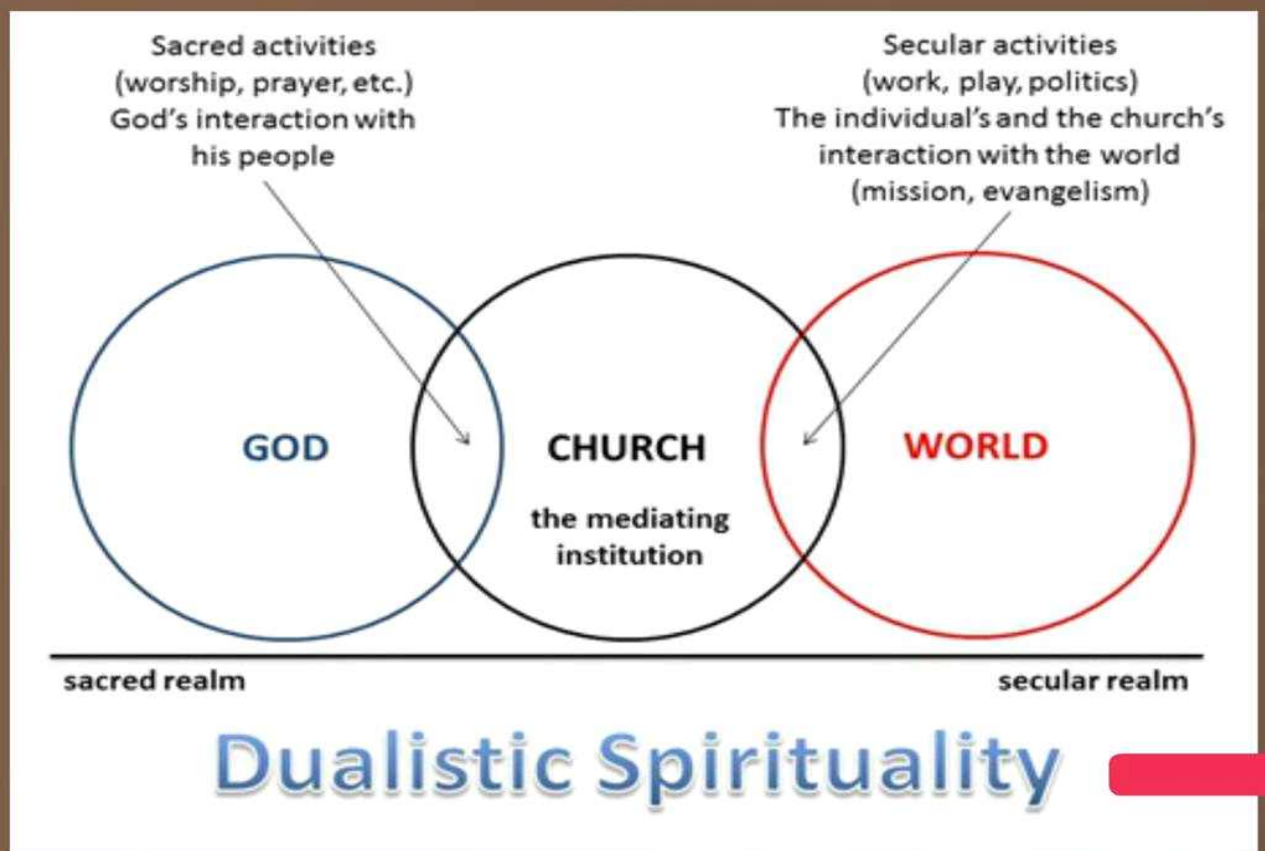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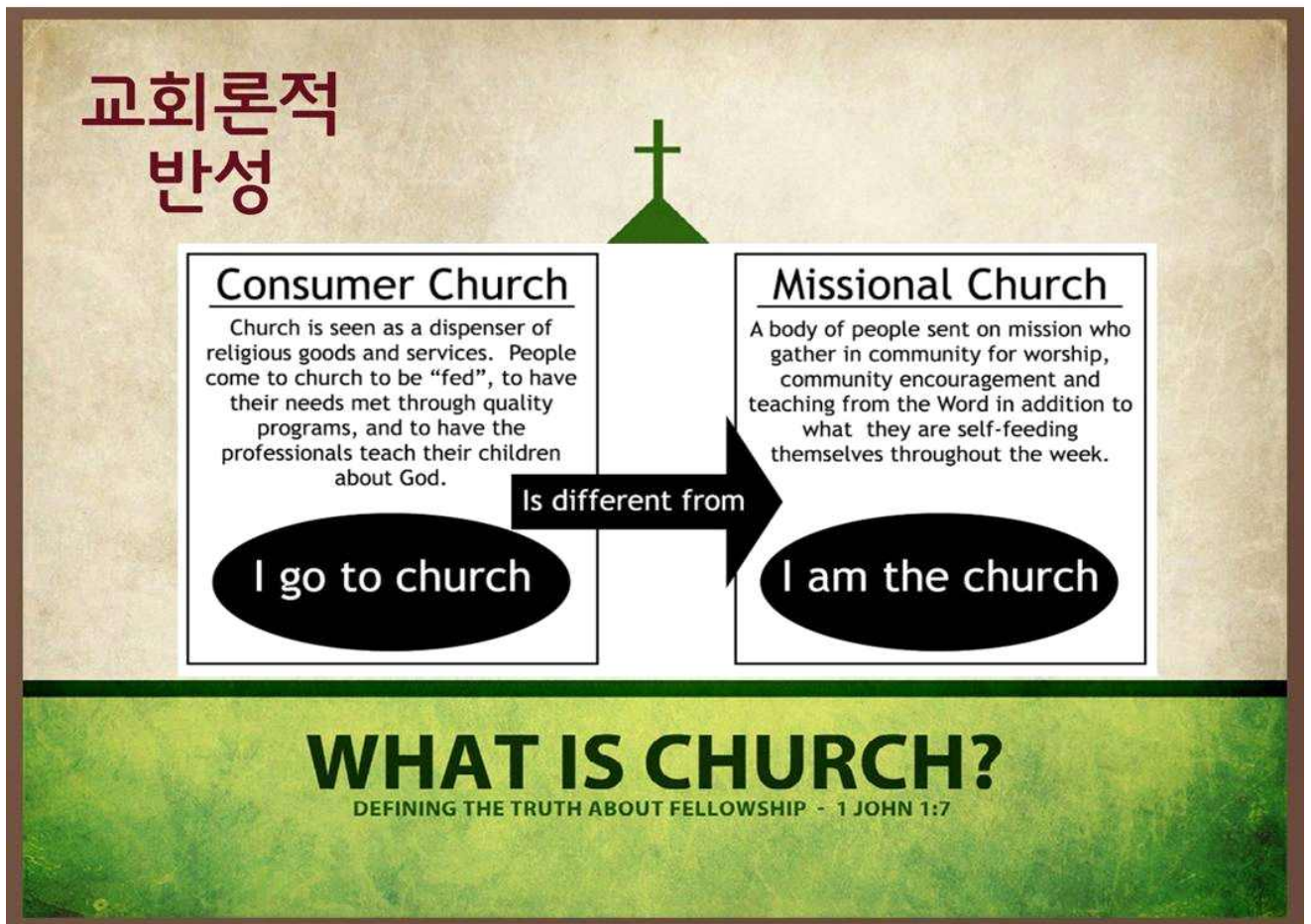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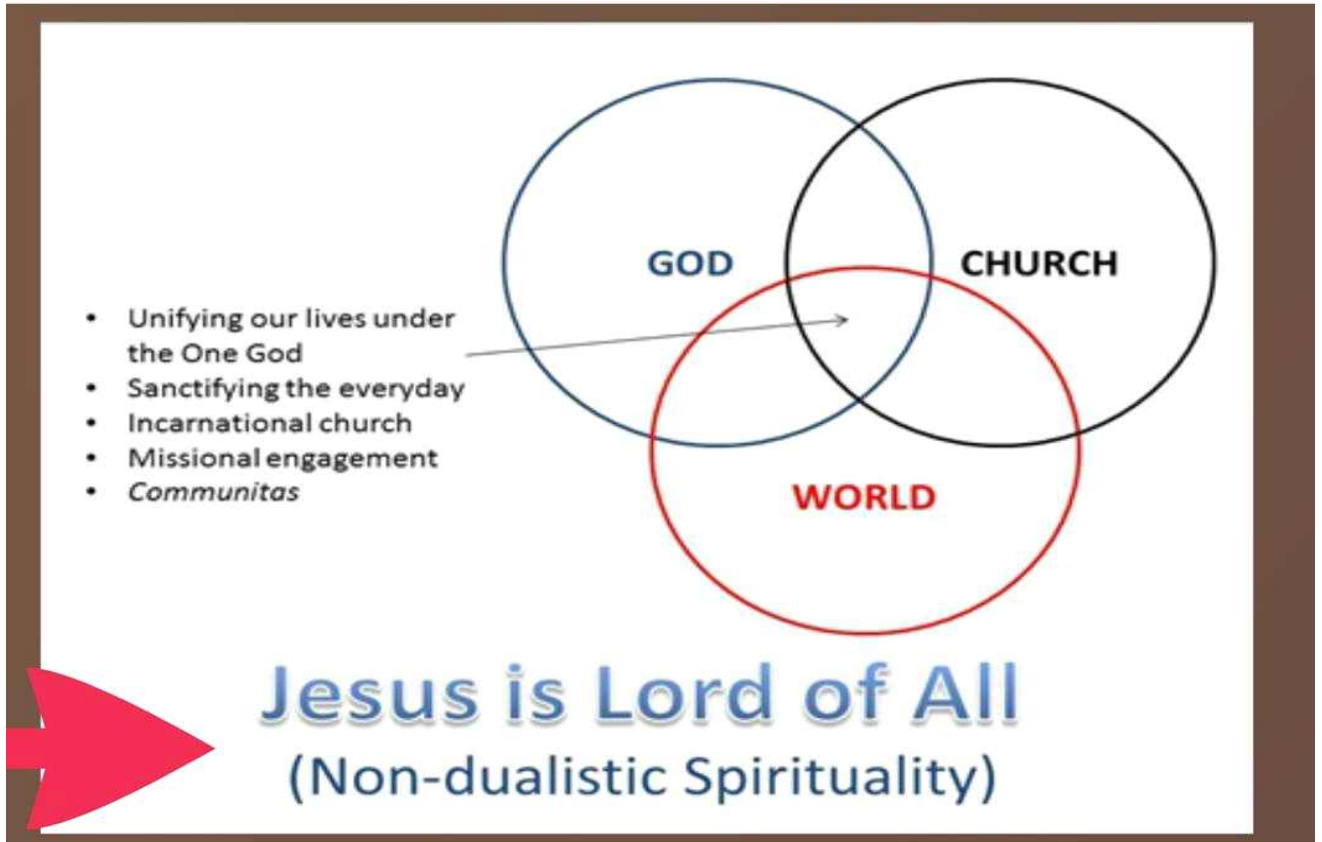
- 대상인 아닌 이웃으로서의 지역
- 목회의 영역으로서의 지역
- 양방향성: 지역의 교회, 교회의 지역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



The Forgotten Ways(Alan Hirsch)





제도적 교회



*교회

- 선교의 근원
"선교는 교회가 한다"
- 예배와 성례전과 교구 관리하는 제도

* 선교: 교회의 사역 중의 하나

- * 선교에 대한 정의: 교회의 멤버십증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린다."

선교적 교회



* 선교의 근원: 삼위일체 하나님

- * 교회: 세상(지역사회)속으로 파송 받은 선교적 공동체
 -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
 - 특정한 사람들의 사역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사역Church with Mission -> Missional Church

* 선교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 주는 존재로서의 교회"

목회지원군 필요



- 공교회성을 위한 자원
- 신학자
- 지역사회 전문가, 리더 그리고 목회자
- 인문학(자)



제안: 디딤돌
당회->항존직->전교인

조직(추진위원회): 소통
전문가, 교회, 지역
사안에 따라 조직간 회의 결정

조사 및 사정
지역 예비조사: 지역 일반, 지역에 공급되는 복지 현황
설문조사: 지역과 교회

교육: 함께
신학적 검토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

벤치마킹: 실증
관련된 모범 사례
추진위, 당회, 실무자

실행: 연습
시범지역



안부사역



방과후교실



다섯콩 도서관



바오밥카페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아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 부모님으로, 친구로 다가서는 선생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방과후교실



구청의 요구로 시작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사역

헌신된 사역자

전문성

교회의 깊은 이해

3불정책

교회의 이유로 다르게 사용하거나 문을 닫지 않는다.
교회의 직접적 홍보나 전도의 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교우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장되는 사역

주민인문학아카데미
자발적 모임 확대

주민이 주인인 카페

바오밥 카페

동네 사랑방.

누구든지 와서 쉬어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동네 주민들에게
살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카페 운영입니다.

바오밥카페



다섯콩도서관

책으로 삶의 즐거움을 복돋우며
다 함께 행복한 마을 도서관을
꿈꿉니다.

이웃이서부터 이웃살까지 행복하는 복서정착공간, 책과 재료가 가득한 소풍가
공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스스로 건강한 가치를 위해
활동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소: 비정산리 3동 단선동도서관
- 운영시간: 월~목, 금요일 11:00~19:00 / 수요일 11:00~17:00
- TEL: 02-380-9188
- 홈페이지: <http://5beanslib.org>







다섯콩작은도서관

공기놀이하는
느낌으로!!!

어린이도서관
약 11,000권 소장, 약 1,000명 회원
전문사서와 자원봉사자로 운영
도서관을 매개로 문화 운동 전개
지역의 아동과 부모들의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의 결과
사업내용: 독거어르신들에게 안부와 도시락 제공
사업 원칙
외부기관 추천
사업팀에서 대상 결정
대상의 요청에 의한 메뉴 개발

안부사업

혼자 사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삽니다.

선호를 고려해 공한거나 밥주요,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립니다.

안부사업









공적교육기관지원
 교사캠프
 학생정서지원프로그램
 학부모인문학
 교장 협의

출발: 은평지역의 13개 교회
 MOU: 은평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 설립
 교회학교 지원

교회가
 공교육기관을
 섬기다.



<https://thebaeum.or.kr>

더불어 배움 > 교육지원 > 문화지원 > 마을지원 > 내들 건너서 숲으로 > 함께하는 사람들 > 후원안내

함께하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은평구청	 송도구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정보도서관	 현대해상	
함께하는 교회	준비중입니다.				
함께하는 학교	갈원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 구원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낙번초등학교 대운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여우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역촌초등학교 연희초등학교	가재중학교 경성중학교 광성중학교 구산중학교 대성중학교 도림중학교	아원중학교 여우중학교 연신중학교 연신중학교 연신중학교 연희중학교	매산고등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신원과학기술고등학교 신일아베르스스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마을형청소년케어

-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 위탁 프로그램
- 매주 토요일 운영

공감캠프

- 지역 어린이와 함께 하는 여름학교
- 1박 2일 프로그램
- 전문가들 초청 운영

“아침 성서연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본문: 시편 139: 1-6, 엠 4:11-12, 롬 12:1-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아는 것에 따라 그의 신앙의 범위와 넓이, 깊이가 영향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생각하는 세상과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좁게 이해하면 그의 신앙과 삶이 좁아지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 행동반경도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진행됩니다. 우리는 주일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깨닫지만 주중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소중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까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나를 살피고 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가를 다윗은 이어서 묘사합니다.(2-5절까지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내가 한 말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표현하지 않은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뿐 아니라 5절을 보면, 내가 살아온 날을 알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도 알고 계시고,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는 다윗은 6절에서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만 관여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과 행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관계와,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똑 같은 일이 지루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무지 하나님이 관계하신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세속적인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일상과 구분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때로는 참회와 회개하는 것이지,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깨달고, 이미 세상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와 주 중의 삶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일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일의 드리는 예배와 주중의 삶이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이분법적 분리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주일과 평일,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 예배와 일 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현재 우리의 신앙적 생각 속에 자리한 이분법적 분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만나지만 일상에서도 만나고 일하시는 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공간, 관계는 하나님이 임재하며 축복하시고 일하는 하나님의 선교현장이며 또한 세상에서의 성도의 거룩함과 소명이 실천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신앙과 소명 안에서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목회자와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롬 12: 1-2

롬 12장 1-2절의 핵심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배를 단지 성전 안에서 예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구별된 몸, 구별된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예배 후의 예배”(liturgy after liturgy) 용어로 예배의 근본정신을 표현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에 모여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는 “예전적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의 두차원이함께있어야하는것을강조합니다.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예배로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바울은 2절에서 그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 매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표현 역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 명문대학교 출신의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벤처 기업의 사장인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대화 중에 본인의 진실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받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꿈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면 목회자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반

문하였습니다. 이 분은 매우 신앙적으로 진지하고 순수하였습니다. 이 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우리사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엠편 4: 11-12

평신도의 소명: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

소명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명을 목회자, 즉 성직자에게만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경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가졌음을 가르칩니다. (직업적 소명)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러한 구분은 신학적 구분이라기 보다는 **사회학적 구분**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악한 직업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직”이며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소명의 장으로 받았다면 평신도는 세상을 소명의 장으로 받았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신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교회는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와 세상, 일과 예배 사이를 연결하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말과 삶,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에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 안에 흠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와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소명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과 직업현장에서 실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소명과 직업적 소명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교와 직업적 소명의 분리는 곧 세상을 세상에게 내어주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교회 안의 종교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축소되어졌다. 선교적 명령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활동이라면 직업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사례:

- 1) 송인수 대표: 사교육 없는 교육, 입시경쟁 없는 교육
- 2) 송악교회와 거산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

결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21세기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각각 주어진 은사와 사명에 따라 진정한 동역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한 주간 동안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장, 세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변화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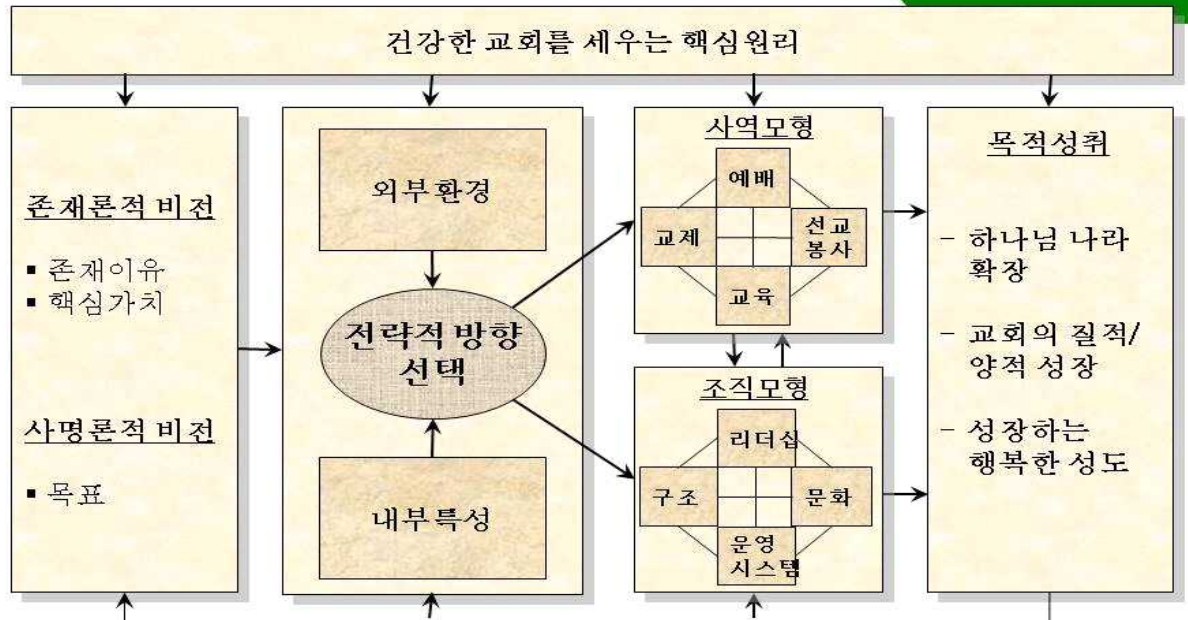
양혁승 교수(연세대)

변화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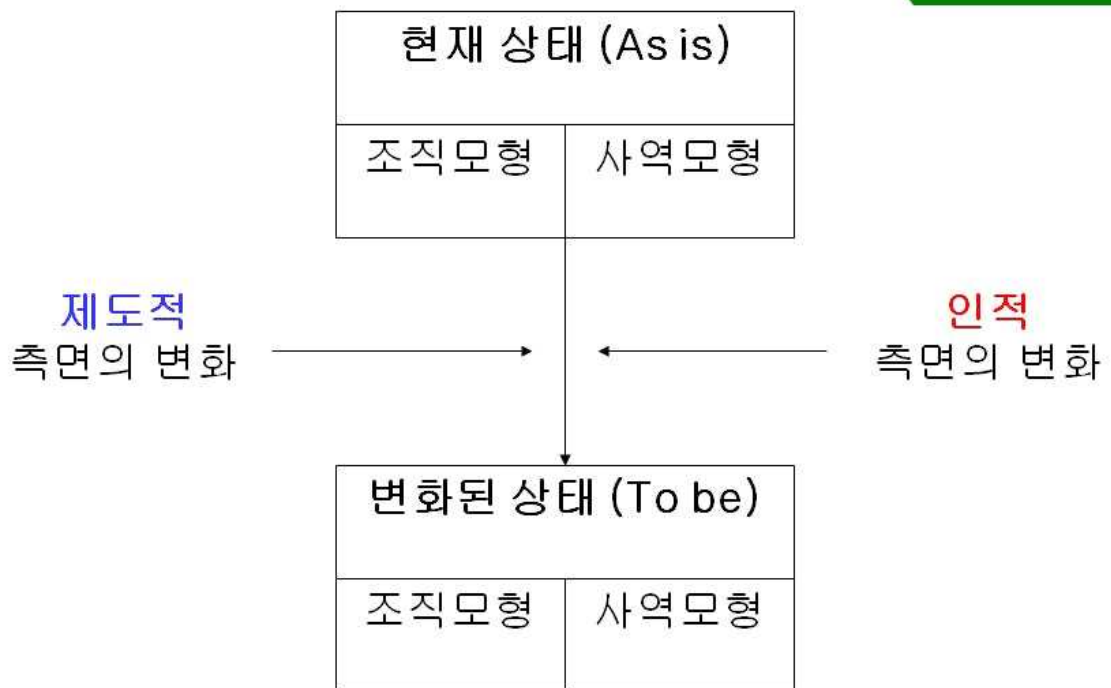
양 혁 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교회조직 분석틀



변화관리의 두 가지 측면



- 제도적 측면

: 현재의 조직모형이나 사역모형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

- 인적 측면

: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념체계, 사고방식, 태도, 행동양식, 사역수행방식 등을 조직이 지향하는 변화노력의 방향에 맞춰 바뀌어나가는 것

준비: 리더의 자기 세우기

1. 신앙관/교회론 확립

- God-centered faith (vs. self-centered faith)
- 선교적 교회론

2. 말씀에 집중: 성도들의 하나님 이해 돕기

3. 하나님의 뜻에 믿음/순종으로 반응하기

→ 리더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 기반
영적 계기 마련

준비: 사람 세우기

1. 교회 지체들 포용하기

-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 곤고한 자(롬 7:24)
- 서로에 대한 **이상적 기대치**는 금물
- 사역보다 사람 세우기가 우선!
- 지체들은 **비판/비교**의 대상이 아닌, **이해/공감**의 대상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엡4:32)

2. (잠재)리더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우기

- **판단과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이 되게 하나,
사랑과 용납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준비: 교회에 대한 현실적 이해

-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under construction!)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 교인들에 대해 실망하기보다, 주 안에서 그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journey)**으로 이해하기
- **사랑의 공동체**는 실현된 현실이기보다는
이뤄가야 할 목표!

준비: 패러다임 전환

- 패러다임을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임
 -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패러다임**을 바꿀 계기
 - ‘코람데오’로 문제 바라보기: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내 **기도/믿음**을 키울 계기
 - 사람에게 대해 실망할 때: 내 **품/사랑**을 넓힐 계기
 - Character Build-up의 새로운 **Journey**
“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경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 변화추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영적 도전
 - 하나님의 인도에 믿음/순종으로 반응하는 **탐험적 삶**
 - 영적 도전이 중단될 때 **과거회고적 신앙**에 머물게 됨

변화의 필요성 공유

- 위기의식과 변화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
- 존재론적 비전과 핵심가치 확인/정립

변화추진에 대한 지지 확보

-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
- 변화추진의 주체로 세우기
 - 정서적 측면의 변화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에 대한 의구심**과 **저항 심리**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방향 그리고 변화 이후의 미래상에 대해 지지하고 변화노력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임.
 - 주요 직분을 맡고 있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변화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

변화추진 내용 실행

- 구체적 행동지침 혹은 안내서를 제공
 - : 새로운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익숙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효율성의 덫**: 익숙한 방식과 관행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에 비해 당장에는 더 나은 효율성을 다져 다 줄 수 있음.
- 가시적인 작은 열매 맺기: **power of small wins**
 - : 단기간에 특정 부문에서라도 가시적인 변화노력의 열매들을 맺어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그 열매를 맛보고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조직문화로 승화시키기

- 과거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교회공동체 안에 뿌리내려 정착되기까지 변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유의할 점

- **담임목회자의 전폭적 관심과 지지**
: 변화옹호자의 입장에서 변화과정을 선도하고 확실하게 지원해야 함. 담임목회자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함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할 때 변화 노력의 진정성이 확보됨.
- **조급증 극복과 일관성 유지**
: 구성원들이 새로운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업무수행방식 등을 몸에 익힘으로써 새로운 행동규범과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일관성 있는 집중적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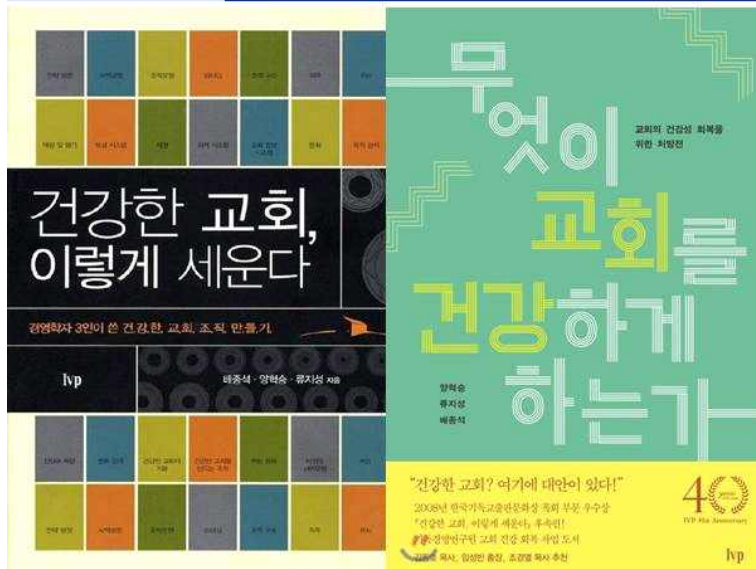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건강한 교회 : why? what? how?)

배종석 교수(고려대)

제주목회아카데미
2018.10.26

건강한 교회: Why? What? How?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johngbae@korea.ac.kr

Why?

리더에 대한 평가

- **결과**
 - 책임, 기여, 선물교환경제, 정의로운 분배
- **원칙**
 - 정직, 과정상의 정의, 신뢰
- **사람**
 - 성장, 의미, 존중, 목적으로 대우
- 이것들을 오랫동안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교회와 기업

- **교회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영역인가?
 - 교회교육?
 - 리더십?
 - 정직과 신뢰 등의 가치?
 - 효과적인 정치제도, 조직구조?

- **기업은...**
 - 최근 경영(학)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몇 가지 주제들
 - 사랑, 영성, 신뢰, 사회적 가치, 투명성, 정의, 섬김, 책임
 -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이 세대의 사람들"
 -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눅 16:8)

4

교회의 현실은?

- **선한 개념으로 '악의 평범성' 침투**
 - "은혜"라는 이름으로: "은혜롭게 합시다"
 - "성직"이라는 명분으로: 목사가 **문제**이고 목사가 **답**이다 (경남의 어느 교회)
 -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끝없는 "(교회)조직"에의 충성을 요구

-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 리더십과 목사-장로 관계
 - 예산과 집행; 투명성
 - 직분자 선출
 - ➔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나 신학적 이슈인가?

5

의미 있는 전체가 되는 조건



- 컴퓨터, 건축, 자동차 등의 부품이나 재료를 분해하여 “그냥” 묶으면 무엇이 될 것인가?
- 개체들을 의미 있게 묶는 것은 무엇인가?

6

일반조직과 교회조직



■ 조직의 생성과 유지를 위해 사람들이 만든 존재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있음

■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뜻과 개입으로 시작되고 유지됨

- 공통된 특징
 - 유기적 통일체: (1) 조직은 개인이 필요; (2) 발현적 속성 생성; 상위 법칙이 동일/하위 개체 통제
 - 조직은 존재론적으로 개인과 상호의존적; 개인 행위 의존성; 개념적으로 매개되거나 담론에 환원되지 않음

7

What?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리가 출발이다

■ 건강한 교회는?

- 공동체와 조직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 성경에서 도출된 핵심적 원리가 바르게 적용되어
-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제도화된 공동체

■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내고 추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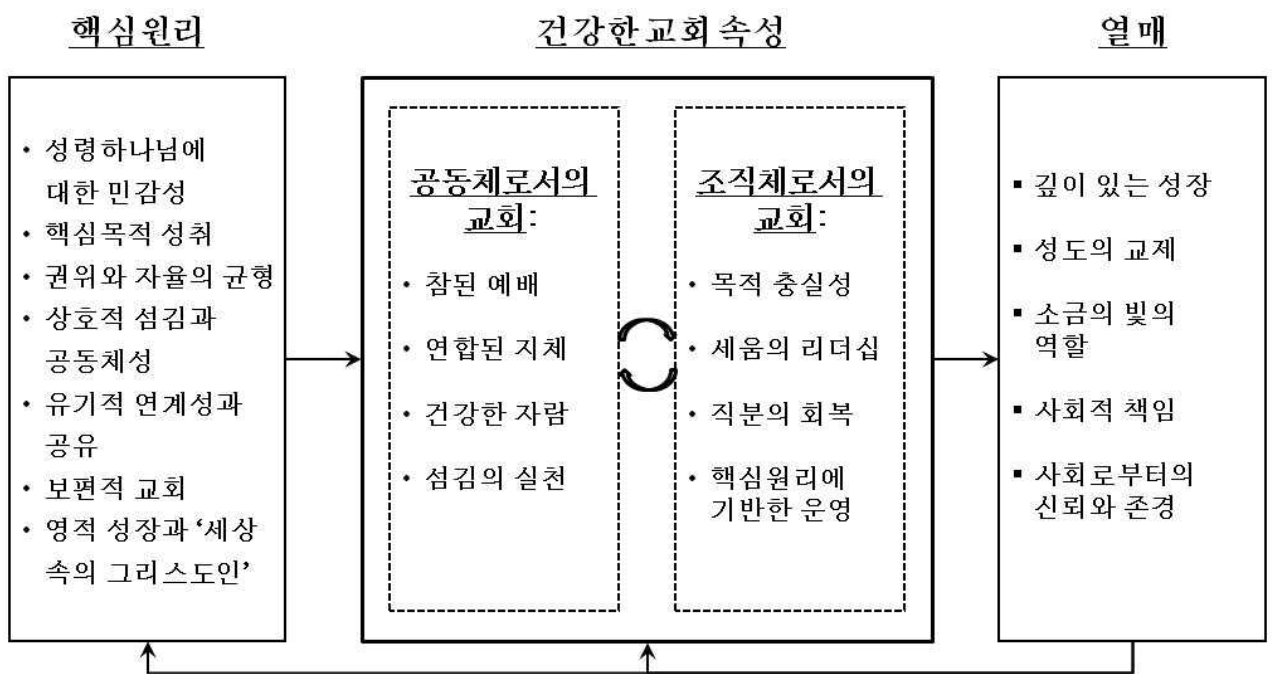
■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

- A4 용지 5장 짜리 정리 → 한 장 짜리 요약 →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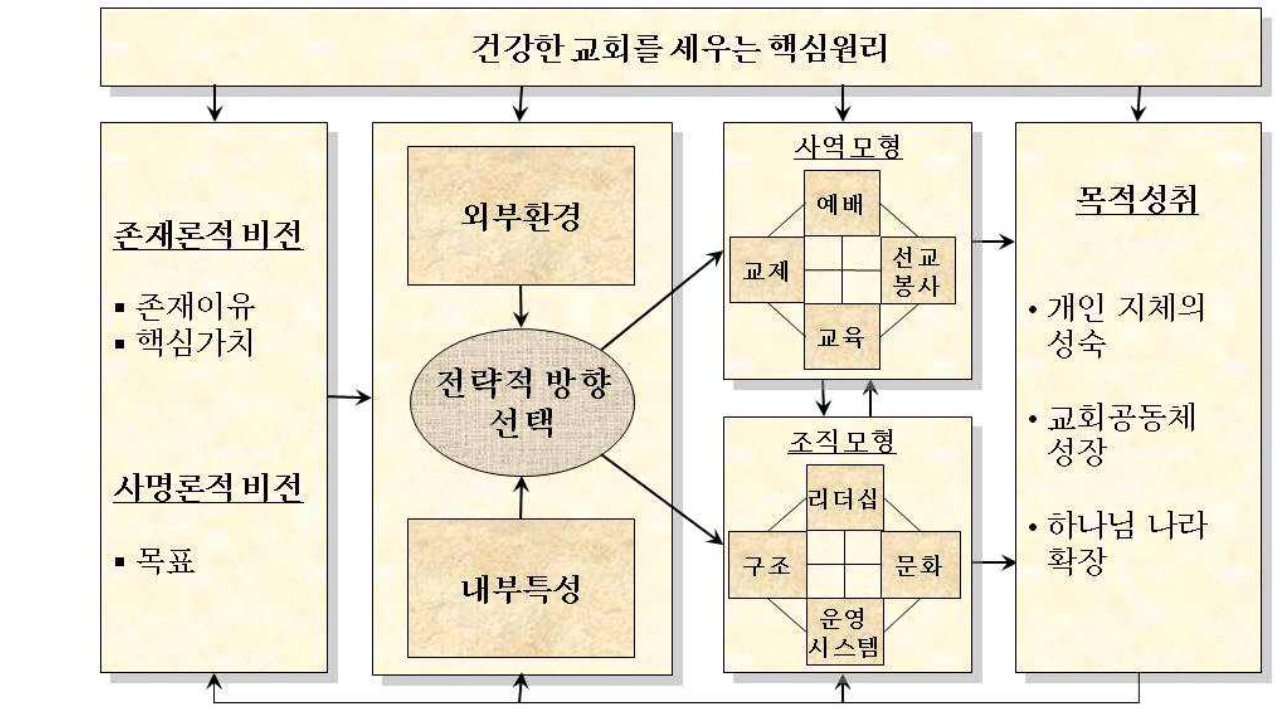
건강한 교회에 대한 핵심리더의 공유가 필요

- 누가 핵심리더인가?
- 건강한 교회에 대해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
-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 핵심리더 공부: [갈렙성경공부]

건강한 교회 분석틀 (1)



건강한 교회 분석틀 (2)



12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곱 가지 핵심원리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문제

건강한 교회의 핵심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불인정	→	성령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	→	핵심목적의 성취
목회자의 당회 중심의 교회 운영	→	권위와 자율의 균형
직분제도의 세속화	→	상호적 섬김과 공동체성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교회운영	→	유기적 연계성과 공유의 원리
내부지향적이며 개교회주의	→	보편적 교회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	영적 성장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3

핵심원리의 선택

- 개별 교회는 7개의 원칙의 선택 혹은 변형해서 사용 가능
 - 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 목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교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 사례
 - 권위와 자율의 균형
 - 투명한 의사결정과 재정사용
 - 직분자 선출의 엄격성

14

비전이란?

- 존재론적 비전: 교회의 존재이유와 관련된 궁극적 목적과 본래적 의미
 - 성취하기 어렵지만 **별과 같은 길잡이** 역할
 -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런 교회**”
- 사명론적 비전: 교회가 이뤄갈 거대한 목표
 - 온 구성원이 힘을 함께 쏟으면 이뤄낼 수 있는 **높은 산과 같은 목표**
- 공유된 비전은
 - 교인들이 교회의 목적과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 꿈과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 헌신과 강한 동기를 부여 받아 참여와 협력을 불러 일으킴

15

전략적 방향은?

- 교회의 **내부적인 상태**를 충분히 파악
 - 교인의 특징 (연령대별 구성, 주거지 분포, 신앙교육의 정도 등)
 - 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특징
 - 교단의 전통과 방향

- 교회의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파악
 - 교회의 지역사회의 특성
 - 한국교회의 경향성
 - 한국사회의 변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개인주의화 등)

- 전략적 방향
 - 내부적인 약점을 극복하면서 내부적 강점을 가장 잘 살려서 외부 환경의 위협요인을 막아내면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발굴과 시행

16

How? 진단과 처방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지 CHEQ I의 구성 (1)

구분	진단 내용	세부 내용 (괄호 안의 숫자는 설문 문항 수)	문항수
개별 요소	핵심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령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의 원리 (2) • 핵심목적의 성취 원리 (2) • 권위와 자율의 균형원리 (2) • 상호섬김과 공동체 원리 (2) • 유기적 연계성과 공유의 원리 (2) • 보편적 교회의 원리 (2) • 영적성장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원리 (2) • 핵심원리 총괄평가 (1) 	15문항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의 적정성 (1) • 비전의 명확성 (1) • 비전 공유 정도 (1) • 비전 실천 정도 (1) • 비전 달성 정도 (1) • 전략적 방향성 (1) • 비전과 사역의 정합성 (1)* • 비전과 조직의 정합성 (1)* 	8문항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역(예배, 선교, 봉사, 교제, 교육)과 비전과의 정합성, 그리고 5P (purpose, program, people, process, product)를 중심으로 진단 • 사역간의 정합성 (1)과 사역과 핵심원리와의 정합성 정합성 (1)* 	32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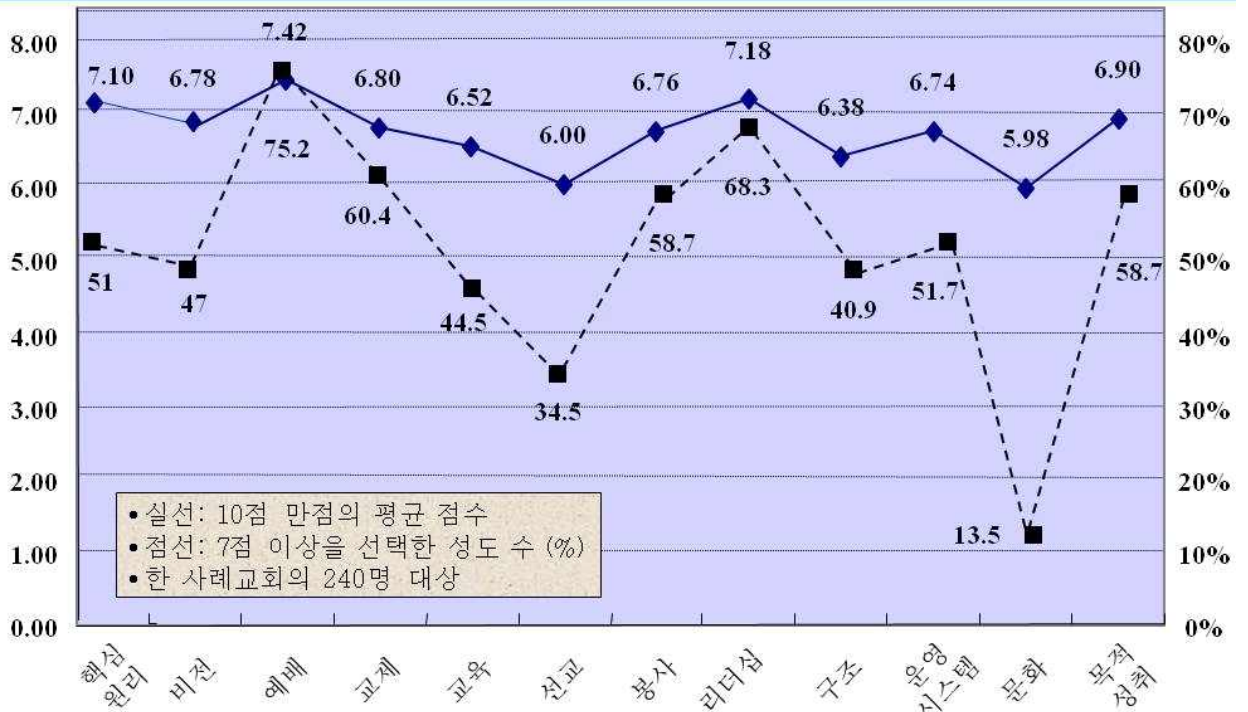
18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지 CHEQ I의 구성 (2)

구분	진단 내용	세부 내용 (괄호 안의 숫자는 설문 문항 수)	문항 수
개별 요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구조: 부서화 (1); 조정과 통합 (1); 의사결정 (1); 핵심원리 반영 (1); 핵심사역 촉진 (1) • 조직리더십: 자기세우기 (1); 사람세우기 (1); 비전세우기 (1); 조직세우기 (1); 리더선발과정 (1) • 운영시스템: 직무관리 (2); 은사 및 역량관리 (2); 평가 및 보상관리 (2); 재정 및 회계관리 (2); 정보 및 홈페이지관리 (2) • 교회문화: 핵심원리 반영 (1); 성경적 가치/핵심가치 반영 (1); 문화의 공유정도 (1); 문화의 영향력 강도 (1); 복수문화 관리 (1) • 조직모형 네 가지 요소간의 정합성 (1)* 	26문항
	목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목적성취 여부 (7): 하나님 나라, 양적 성장, 질적 성숙, 성도의 영적 성장, 거룩한 공동체, 행복한 성도, 소속에 대한 자부심 	7문항
전체문항			88 문항

19

CHEQ I의 결과 (J교회 전교인 대상)



20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지 CHEQ II의 구성

진단내용	세부내용	문항 수
1. 교회 배경과 현황	(1) 교단; (2) 지역; (3) 설립연도; (4) 목회자 수; (5) 성도 수; (6) 성도 수 추이; (7) 개척한 목회자 여부; (8) 성도 거주지	8 문항
2. 간단한 교회 건강성 진단	(1) 성도들의 영적 상태; (2) 분위기; (3) 갈등 여부; (4) 지도자 신뢰와 존경 정도; (5) 행복감; (6) 교회 떠나는 자; (7) 이웃사랑; (8) 교회건강에 대한 기대; (9) 교회다움; (10) 당회원간 관계; (11) 교역자간 관계	11 문항
3. 건강한 교회 속성	(1) 참된 예배; (2) 연합된 지체; (3) 건강한 자람; (4) 섬김의 실천; (5) 목적에 충실한 교회; (6) 섬김의 리더십; (7) 직분의 회복; (8) 핵심원리에 기반한 운영	40문항 (각 속성별 5문항)
4. 교회건강성 영향 요인	여덟가지 속성에 대한: (1) 목회철학; (2) 교회문화; (3) 전략	24문항 (3 요인별 8가지 속성)
5. 건강한 교회의 열매	(1) 행복한 성도; (2) 좋은 평판; (3) 새신자 증가; (4) 목회자와 성도간 건강한 교류; (5) 본질적 목적의 달성; (6) 예수님의 뜻의 온전한 실현; (7) 교회다움을 유지	7문항
전체문항		90문항

21

CHEQ II 설문조사 결과: 간단한 건강 진단^{III} (2013년)

간단한 교회 건강성 진단	긍정응답비율*	평균
1.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63.8%	3.95
2. 교회 분위기가 밝고 활기가 넘친다.	72.8%	4.02
3.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내 갈등이 없었다.	43.8%	3.66
4. 교회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81.1%	4.27
5. 성도들은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생활에서 비교적 행복감을 느낀다.	80.0%	4.11
6.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24.4%	3.26
7. 성도들은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37.7%	3.53
8.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88.9%	4.34
9.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한다.	73.3%	4.04
10. 목회자와 장로(혹은 이에 준하는 교회리더)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60.0%	3.86
11.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56.7%	3.83
전체 평균	62.0%	3.89

^{III} 이 표의 결과는 개별교회의 진단결과가 아니고 설문에 참여한 교회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 긍정응답비율은 교회별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점과 5점 사이의 값을 얻은 교회의 비율을 말한다.

22

CHECK II를 사용한 한국 교회 전체 설문조사 결과

진단 차원		긍정응답 비율 (%)	평균	진단 차원		긍정응답 비율 (%)	평균
간단한 건강성 진단		62.0	3.89	교회 조직체	직분의 회복	53.1	3.77
교회 공동체	참된 예배	66.3	4.02		핵심원리에 기반한 운영	44.3	3.60
	연합된 지체	45.4	3.63	영향 요인	목회철학	63.0	3.93
	건강한 사람	41.6	3.52		성도의 공유	53.8	3.79
	섬김의 실천	48.1	3.63		수행 전략	45.6	3.66
교회 조직체	목적 충실성	44.8	3.63	교회의 열매		61.4	3.88
	세우는 리더십	48.2	3.69				

23

질문

- 목회자로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핵심리더와 공유하고 있습니까?

- 우리교회의 **핵심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잘 지킬 수 있습니까?

- 우리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공유되어 있습니까?
 - 열정을 모으고 있습니까?
 - 참여와 헌신으로 이어집니까?

- **전략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 내부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 외부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은 무엇입니까?

“말씀, 삶, 공동체”

지형은 목사(성락교회)

모든 종류의 신앙적 갱신은,
그것이 기독교적이려면
66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하다.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요,
기독교 역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다,
갱신의 초점과 심장이 늘 말씀묵상인 까닭이 말이다.
말씀묵상으로써 말씀이 삶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동체가 근원적 의미의 교회다.

지형은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목사)

1. 강의에 대하여

(1) 모든 종교의 심장은 경전이다. 거의 모든 고등종교는 글로 기록된 경전을 갖고 있다. 여기에 그 종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어느 종교의 정체성이 여기에 걸려있다.

경전에 비하면 기도는 부차적이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종교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기보다 종교 현상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경전과 기도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경전의 내용은 기도로서 완성되며 기도는 경전에 뿌리를 두고서야 기도다.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는 떼어 수 없는 하나라는 얘기다.

(2) 기독교란 무엇인가? 무엇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는가? 기독교를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66권 성경에 걸려있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요 내용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기독교 신앙이 드러난다.

(3) 이 강의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다룬다. 이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삶’이란 축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에는 이 흐름이 기독교 역사에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살핀다.

늘 중요한 것이 성경의 근거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다음에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 또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에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다.

강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신학 공부와 목회 사역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학과 목회 여정에서 말씀묵상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얘기하겠다.

2. 그리스도인의 행복 : 말씀-체험으로 죄를 넘어서기

(1) 사람의 불행은 죄에 그 뿌리가 있다. 불행을 넘어서서 행복해지는 길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분을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행복은 말씀과 연관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뵈옵고 만난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데, 구원 후에 곧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작동하는 자리에 죄가 설 자리가 없다. 말씀이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에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2)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일 곧 ‘말씀-체험’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 사역을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다.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사역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직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자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말씀이신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서 사니까 그렇다. ‘말씀묵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신앙의 훈련에서 심장과 같다.

(3)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의 모든 직분은 근본적으로 말씀사역 또는 말씀-체험에 연관된다. 사도행전 6장 1-7절에 이 점이 뚜렷하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디아코니아 곧 섬김인데, 두 가지가 있다. ‘로고스 곧 말씀의 디아코니아’, ‘트라페조 곧 식탁의 디아코니아’다. 식탁은 말씀과 연관된 것 이외의 모든 사역을 총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과 이렇게 연관된다면, 어떤 신앙 공동체이든 그 모든 직분자는 더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마땅하고 자연스럽다. 전문 목회직과 평신도 목회직이 그렇고 기타 모든 직분들이 그렇다.

특히 목양의 중심에서 섬기는 목회자는 누구보다 더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이 먼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체험하고, 실존적 고백과 증언으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이다.

3 성경의 가르침에서 : 말씀-삶 운동

(1) 창조는 말씀의 창조며, 구원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 이후 성령의 시대는 말씀이 세계의 삶으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말씀-삶 운동’의 과정이다.

성경 66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살림하시는 살림살이에 대한 기록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곳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2장이다.

세 곳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이다. 창조는 말씀하신 내용이 실재가 된 사건이다. 구원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창조와 구원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거대한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빛과 힘으로 말씀이 일상과 인격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2) 창세기 12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은

창조 이래 진행되는 구원의 긴 여정에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진다.

성경적 기독교의 중심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성경적인 복이 걸려 있으니 아브라함은 동시에 ‘복의 조상’이기도 하다.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하여 논한다면 아브라함과 연관된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 것이다. 특히 창세기 12장 1-4절은 이 주제에 대하여 가장 고전적인 성경 본문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각각 비움과 채움과 나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형화 된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의 세 가지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정화(purgatio)

조명(illuminatio)

신비적 합일(unio mystica)

용어에서 얼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구원의 길이다. 창세기 12장 초반의 세 가지 항목과 신비주의적 구원의 길에 있는 세 항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항목을 제한적으로 고려한다면 큰 틀에서 상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신비주의적 구원의 길에서 처음 두 항목은 회개를 통한 칭의 또는 중생과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마지막 항목 신비적 합일이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항목은 나눔의 삶이다. 나눔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현존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신비적 합일보다 더 건강한 가르침이다.

(3)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주기도문은 핵심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주기도문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그렇다. 이 말의 헬라어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드

러내시는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중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여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4)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다.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에 훈련된 사람이 제자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의 임재로써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현존하시는 까닭도 말씀이 삶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내용은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이며, 방법과 목표는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니다.

4. 교회 역사에서 :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

(1) 우선 ‘렉티오 디비나’ 또는 ‘렉시오 디비나’로 발음하는 이 라틴어의 뜻과 한글 번역에 대하여 살핀다. 보통은 ‘거룩한 독서’라고들 많이 번역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생긴다. 렉티오 디비나란 단어의 교회 역사적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었다. 이 단어에 성경 이외의 여러 경건한 서적이거나 문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하면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성서묵상’, ‘성경묵상’, ‘말씀묵상’ 등이 될 것이다. 좀 더 풀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진리인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내는 표현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묵상’이란 표현이 가장 좋다고 본다.

(2) 12세기에 살았던 수도자 귀고2세가 쓴 ‘관상생활에 대하여 쓴 편지’는 영적 묵상에 연관하여 가장 유명한 글이다. ‘수도자들의 계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짧은 이 글이 렉티오 디비나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전해준다. 그러나 렉티오 디비나에 대하여 신학적 비평 없이 이 글을 추종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귀고2세의 글을 역사적 흐름에

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에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이 렉티오 디비나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다양하다. 귀고2세가 말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네 단계의 형태만이 아니다. 귀고2세가 남긴 글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가장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틀을 가장 많이 얘기할 뿐이다. 당시의 신앙인들이 남긴 렉티오 디비나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다음과 같다.

귀고2세 : lectio - meditatio - oratio - comtemplatio

귀고1세 : comtemplatio - oratio - meditatio - lectio

성빅토르의 휴 : lectio - meditatio - oratio - operatio - comtemplatio

아담 : lectio - meditatio - oratio - actio

보나벤투라 : meditatio(lectio) - oratio - comtemplatio

(3)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남긴 명제다. 루터는 독일어로 쓴 자신의 글들을 모아 출판할 때 그 서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명제를 남긴다.

루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른 성 어거스틴을 언급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을 말한다. 신학 공부의 중심은 성경이며 이 성경은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랬듯이 '기도와 묵상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작동한다.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시편 119편에서 너는 시편 전체를 덮고 있는 세 가지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이다. 기도, 묵상, 시련.”

루터의 이 말을 라틴어 문장으로 하면 이렇다.

“Oratio, meditatio, tentatio faciunt theologum.”

(기도와 학문과 시련이 목회자를 만든다.)

기독교 신앙은 귀고2세보다는 중세를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찾은 루터에서 말씀묵상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루터 이후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훈련은 교회 공동체에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경건주의에서 강조된다. 경건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삶이 약해져가는 시대에 종교개혁의 신앙과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실천하여 교회와 사회를 갱신하려는 신학과 신앙 운동이었다.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시의 병든 교회가 이로써만 갱신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말씀대로 인격과 삶의 현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작은 모임이 생겼는데, ‘경건 모임’(Collegium pietatas)라 불렸다.

독일 서남부 지방인 뷔르템베르크 주에 경건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정착되는데, 그걸 ‘Stunde’(시간)라고 부른다. 성경에서 매일 묵상할 말씀을 뽑아 놓은 것을 ‘Losung’라고 했다. 오늘날의 말씀묵상지의 뿌리인 셈인데, 경건주의 3세대 지도자인 저 유명한 진젠도르프의 신앙 공동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큐티’라는 단어의 교회사적 기원은 경건주의에 그 뿌리가 있고, 소그룹 성경공부 방식의 제자훈련도 그 근원을 경건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5. 예수님의 말씀묵상

(1)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훈련의 기본 구조가 이 본문에 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묵상의 핵심은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곧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에 있다.

첫째,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둘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둘째,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2) 성경 연구와 해석은 성경 본문과 나의 삶 사이에서 움직인다. 본문(text)과 상황(context)이다. 성경 본문과 내 삶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내는 두 중심축이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독일의 성경학자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이 말한 유명한 두 가지 명제가 있다.

Te totum applica ad textum!

(너 자신을 몽땅 본문으로 던져라!)

Textum totum applica ad te!

(본문을 몽땅 너 자신에게 던져라!)

6. 말씀묵상의 중심 : 듣기, 읽기, 쓰기, 암송하기 …… 그리고 묵상하기!

(1)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듣기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암송하기며 나중에 쓰기와 읽기가 더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 기반은 ‘묵상하기’다. 그리고 묵상하기는 ‘살기’와 떼어 수 없이 연결돼 있다!

(2) 말씀 듣기를 실제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 길지 않은 성경 본문을 두세 번이나 서너 번 낭독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다. 각 낭독 사이에는 낭독을 듣고서 침묵하며 묵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7. 그리고 공동체 : 사도행전의 구조, 그 세 봉우리

(1) 1장 8절 (복음의 출발)

첫째 봉우리 : 6장 7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부흥)

(2) 9장 31절 (온 이스라엘의 복음화)

둘째 봉우리 : 12장 24절 (이스라엘 교회의 최고 부흥)

(2) 19장 10절 (아시아의 복음화)

셋째 봉우리 : 19장 20절 (아시아 교회의 최고 부흥)

19장 21절 (땅 중심까지 복음화)

8. 결론 :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그리고 말씀-삶-공동체

(1)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말씀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더 심해지면 타락한다. 반면, 신앙의 회복 또는 신앙의 영향력은 말씀이 삶이 되는 데서 작동한다.

(2) 말씀과 기도가 합해진 것을 ‘말씀묵상’이라고 한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체험은 본질적으로 말씀 체험이다.

(3) 성경의 전통으로나, 기독교 역사의 증언으로나,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은 말씀이 삶이 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교회’란 표현은 현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류의 기독교 공동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씀-삶-공동체’다.

(4) 한국 교회의 갱신이 절실한 때다. 믿음으로야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올 것을 바라며 기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부흥이 아니라 갱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5) 모든 종류의 신앙적 갱신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요, 기독교 역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갱신의 초점은 말씀묵상이다.